



커뮤니티 | 속도패치 | 웹호스팅 | 공동구매 | 운영센터 | 검색

출석부 | 인터넷 | 컴퓨터 | 게임광 | 스마트폰 | 스마트TV | 아이패드 | 자동차 | 카메라 | 명품 | 아파트 | 주식판 | 창업 | 아줌마 | 정치판 | 성인만

출석부 | 전체보기 | 매일 즐거운 습관! 출석체크와 새로오신분들 가입인사를 함께해요.^^

PC 최적화와 인터넷 속도패치가 만났다! (Win98 XP 2000 2003 Vista Win7(32bit&64bit)까지 모두 가능!)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 필수유тил - 비씨파크 속도패치 비스타

★ 법의학자가 밝힌 노무현 타살의 증거(필독!)

★ [평]유시민 의원님, 한 법의학자가 <시해사건> 완벽히 재구성해냈습니다 ★

2009.05.23 토 12:45

그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이유가 무엇이건,죽음으로 무엇을 말하고,이루려 했던 자살은 옳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자살이란 선택을 한 당사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면 그건 더욱 더 옳지 못한 행동인 것이다.

무슨 일이건 일어날 수 있으니 세상이다.

충격받을 일도 아니고,감싸고 이해해줄 일은 더더욱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짜 자살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으며,책임감이 결여된 비겁한 도피일 뿐이다.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발표를 믿지 않는다.

차분히 유서까지 남기고 준비된 자살을 할 사람이

조용히 집에서 죽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뒤로 한 채

하필 단 한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뒷산으로 향했다는 얘기는 마치

목이 말라 냉장고 문을 열어 바로 앞에 있는 물병뒤에 숨어있던 간장을 마셨다는 얘기처럼 비논리적이다.

물론 목이 마를 때에도 물대신 콜라나 우유를 선택할 수는 있다.

두명의 경호원을 대동했다거나 조용히 혼자 산에 올라가 뛰어 내렸다면 자살발표를 믿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이런 일기가 경호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아니다.

내 머리가 지금보다 조금 나쁘다면 그렇게 의심하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동한 단 한명의 경호원] 이란 정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상상을 사전에 불식시킬 역 알리바이인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로 얼마전 헬기를 거부했다.

노무현은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함께 죽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달전 유시민 전 장관을 만났다.

어떤 방향으로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불행을 예감했던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는 그랬다.

아침먹고 멀쩡히 출근했던 가장이 들어올 때는 시신이 되어 돌아오고,

어제 웃으며 안부 전화를 했던 아들이 오늘 사망했다는 전화가 걸려오던 시절이었다.

다시 역사가 되돌려지고 조만간 최루탄이 컴백하신다.

그때처럼 심문은 죽음이 생기는 것도 전혀 이상하게 없다

그때처럼 의문의 죽음이 생겨나든 것도 전혀 이상할게 없나.

'노무현 죽이기' 를 하더니 진짜 죽인 것일까?

그런 귀여운 질문은 하지 말아라!

답은 나도 모른다 이니...

분명한건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끝까지 살아 남으려면 강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영원히 둘로 갈라져 둘중에 하나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만 할 운명인가 보다.

불행한 나라에 태어난 국민에게 불행을 헤쳐나갈 용기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이다.

2009.05.23 토 20:53

역시 나의 분석은 틀리지 않았군!

친필유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유서.

그것도 서거 당일날 몇시간 전에 작성.

내용은 건조한 것이 확연히 들어나도록 짧고, 조잡한데 제목은 길기도 하지!

파일명은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고통이 너무 크다.]

영혼에 베인 습관은 변할 수 없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무리 인터넷을 좋아했어도 나이가 육십이 넘은 할아버지가 유서를 한글타자로 남겼다는건

월드컵 경기를 본 날 야구 꿈을 꿴다는 얘기만큼 독특하군!

내가 범죄심리학에는 일가견이 있거든

죽기 바로 직전 유서를 남기는 자살자들은 99.9% 손목을 긋거나,목을 메지!

음독자살을 하거나 투신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유서를 당일날 작성하지 않아!

왜냐하면 음독과 투신이란 방법에는 사전준비(약,장소)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투신자살하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서 뛰어내리는 것 같지?

그건 나이아가라 폭포나 금문교 같이 물이 끌어당길 때의 얘기이고 사람은 점찍어 두었던 익숙한 장소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

결국 음독과 투신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사전에 계획했던 얘기이고 유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는 뜻이지!

기네스북에 오른다면 가장 긴 유서제목이 되겠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모르나?

만약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 자살하러 나가기 전에 급히 작성한 유서의 제목이라면

그 제목은 분명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였을거야!

유서제목이 신기하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바람을 대변해주는군!

정말 신기한 일이지!

유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썼는데 왜 유서제목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할까?

세상은 속여도 나는 못속이지!

2009.05.24 일 16:08

역시나 의학적 정황들도 나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네요!

올해 63세의 당신은 일명 자살바위라 일컬어지는 30미터 높이 70도 경사각의 암벽에서 추락했어요!

그곳은 30대인 내가 떨어진다 해도 즉사할만큼 위험한 장소이죠!

암벽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뛰어 내리지 않아요!

인간은 암벽을 보면 반사작용으로 주춤하게 되기 때문에 **자살자는 무의식적으로 먼곳을 보면서 최대한 멀리 뛰어 내리죠!**

그렇게 뛰어내려 바위에 닿는 1차 충격으로 뼈가 부서지면서 장기가 파열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직접 사인은 두개골 골절 등 두부의 손상 이에요!

즉 당신은 떨어져서 구르게 아니라 구르면서 떨어진 것이죠!

스스로 뛰어 내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밀쳤다는 얘기에요!

당신은 분명 평소의 트레이드 마크대로 양팔을 위로 들고 손을 흔들다가

뒤에서 미는 충격으로 푸쉬업의 자세로 암벽을 짚으며 굴렀어요!

그 충격으로 양팔이 골절된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이 당신을 살게 했지요!

스스로 뛰어내렸다면 즉사했을텐데

누군가 뒤에서 밀어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암벽으로 부터 최대한 자신을 방어했죠!

경호원은 분명 거짓증언을 하는게 아니에요!

처음 떨어졌을때 당시는 분명 상아이어어어!

기다려주세요 언니 노릇이요

의식이 분명했고, 경호원과 대화도 가능했어요!

당신의 정확한 투신 시간은 23일 오전 6시 45분이었어요!

당신은 멀쩡했고, 경호원은 당신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했기에

경호원은 초인적인 일념으로 당신을 들쳐업고 달려 자동차를 이용해 30분만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문제는 병원을 옮기는 과정이죠!

당신은 처음 도착한 세영병원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한 직후 부산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23일 오전 7시 34분 까지 당신은 경호원 한명이 부축해 병원을 데려올 수 있을 만큼 멀쩡한 상태였어요!

김해의 세영병원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골병원이 아니예요!

충분한 의료시설을 갖춘 현대식 병원이죠!

그런데 당신은 이상하게도 조금의 의논도 없이 부산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마치 그곳이 당신이 죽어야 할 장소인 것처럼...

결국 당신은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부산대 병원 도착 1시간만에 숨을 거두었죠!

정말 신기하죠?

젊은 사람이 실족을 해도 죽사를 할 만한 암벽에서 63세의 노인이 자살을 하려 뛰어 내렸는데

척추등 모든게 멀쩡해서 경호원 한 명이 살릴려고 번개처럼 날라다 병원에 모셔다 놓았더니

죽지도 않았는데 청와대로 보고부터 하고 당신은 도토리 키재기같이 비슷한 병원으로

응급처치 기능도 없는 조그만 엠블런스에 실려 느릿느릿 옮겨져

마치 죽을 장소에 도착한 사람처럼 쓸쓸히 눈을 감았죠!

그 나이에 자살하려고 암벽에서 뛰어 내렸는데 어떻게 몇시간 동안이나 살아있었나요?

그래요! 당신은 옛날부터 초인이었으니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죠!

당신 죽으면서 어이가 없어 웃었군요!

요즘 대한민국에 쓸만한 조폭이 없어요!

특A급들은 다 연희동으로 갔거든요!

대통령씩이나 지냈으면서 당신은 왜 세상을 몰랐나요?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갔을 때는 사설경호부대를 운영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경호원은 분명 진실만을 말하고 있지만 기억의 퍼즐조각들을 잃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당장 최면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당신의 죽음은 타살일 가능성이 90% 를 넘어요!

타살이 아니라 해도 이건 분명 의문사라고 봐야죠!

당신이 죽어서 누가 이득이나구요?

그럼 당신이 살아있다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김해세영병원에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지는 40분동안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

맘먹고 투신자살을 하는 사람이 암벽에 머리를 부딪히면 절대 3시간이나 살아 있을 수 없어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당장의 치료없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말이죠!

풀밭에 떨어졌다 해도 피가 흥건해서 혈흔을 일부러 고생해 찾을 일도 없거니와

투신자살을 한 사람을 업고 병원으로 옮기면 옮긴 사람의 옷에 피가 가득 베이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대한민국을 위해 당신이 품고 있는 블랙박스를 보여주세요!

어떤 것이 먼저였습니까?

암벽에서 굴러 떨어져도 불굴의 의지로 살아있던 당신.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이 나중 아니었던가요?

아니면 머리를 둔기로 맞고 떨어진건가요?

두정부는 검도를 한 조폭들이 각목이나 쇠파이프를 휘두를때 많이 노리는 곳이죠!

암벽에서 구른 사람이 왜 하필 머리 위쪽 부분에 11cm 정도의 찢어진 상처를 남겼나요?

머리가 찢어지는건 각목으로 맞았을 때이죠!

먼저 때리고 암벽에서 굴리는건 조폭들에겐 이미 고전이 된 살해 방법입니다.

2009.05.24 일 05:41

후후후~ 왕거니가 하나 걸렸군!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사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해줄 증거는 바로 경호원이 증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몽고인이 아닌 이상 300미터 밖의 사람을 보고 사람이 지나간다고 말하지는 않지!

산에는 나무가 있고,5월은 나뭇잎의 무성함이 절정에 달할 때.

아무리 높은 산정상에 서있다 하여도 사람을 보는 것은 바로 밑의 코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지!

곧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영이 바위 바로 아래쪽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다는 뜻!

첫째 **부영이 바위의 구조는 뒷편은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한쪽면으로만 투신이 가능한 구조.**

결국 그 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래를 보며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 라고 말을 하면

경호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방향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자 여기서 두가지 상황이 성립되지!

먼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벽 가까이로 걸어가면 직책상 요인보다 뒷편에 서있는 경호원은 직분상

"각하 위험합니다." 라고 만류하게 되고 (뛰어내리는 것이 불가능 해짐.)

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경호원이 발걸음으로 이동없이 바로 뛰어 내릴 수 있는 위치까지 간 것이라면 이는 100% 경호과실인 것이지!

즉 한눈을 파는 사이 뛰어 내렸다는 증언은 전혀 말이 안된다는 것.

(경호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뒷쪽에 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라고 말한 다음 그 자리에 앉아 책한권을 읽고 뛰어 내린 것이 아니라!

경호원은 분명 바로 뛰어내렸다고 증언했지!

부영이 바위의 높이는 30미터.

30미터 절벽위에서 성인남자가 떨어지는데 저기 지나간다면 그 사람이 그걸 몰랐을리가 없지!

봉화산이 서울 시내에 위치한 남산이었다면 저기 지나가던 그 사람은 겁많은 도시청년일 수도 있지!

무서운 생각에 그냥 도망갔을 수도 있어!

그러나 경남 김해의 가파른 암벽 밑을 꼭두새벽부터 혼자 걸어가던 그 사람이 소심한 여고생일리는 없는 것!

30미터 절벽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도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렸다는건 전혀 설득력이 없어!

정리하자면

한눈을 파는 사이 뛰어내렸다는 경호원의 증언은 100% 거짓이며,

이 경호원이 인생을 종칠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혼자서 노 전대통령을 수행하며 초긴장을 했을 텐데

그런 경호원이 달음박질 없이 바로 뛰어 내릴 수 있는 위치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면

그건 **경호원이 노 전대통령을 죽였다는 얘기가 진배없는 것이라는 것!**

사고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목격자부터 찾는 것은 수사의 기본.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서거 직전 전직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언급한 **'저기 지나가던 그 사람(목격자)은 왜 수소문해 찾지 않나?'**

어째 일제시대부터 우매한 대한민국 국민들 쉽게 속여가며 권력을 유지해오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닭대가리로 보이던가?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나?

가끔은 돌연변이로 대한민국에 나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거든

차라리 "저기 비행접시가 날아가네!" 라 말하고 경호원을 따돌렸다 주장해라!

2009.05.25 월 15:50

이놈들이 전직 대통령을 폭행 살해하고서 대국민 사기극을 꾸미고 있네!

그러나 트릭은 아무리 치밀해도 결국 깨어지게 마련이지!

김해 세영병원 손과장이 말한 세영병원의 도착시간은 오전 7시경.

경남지방경찰청이 24일 오전 2차 브리핑을 통해 밝힌 노 전 대통령의 투신시간은 오전 6시 45분.

양쪽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면 결국 거짓말은 경호과장이 하고 있는 것이지!

부영이 바위 위에서 세영병원까지 단 20분만에 도착했다는 얘기인데

경호과장도 부영이 바위에서 굴러 내려왔나?

부영이 바위에서 내려오는 시간 + 노 전 대통령을 업고 차로 가는 시간 + 차로 세영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 20분?

절대 불가능 하지!

노전대통령이 **오전 7시 35분에 김해 세영병원을 출발해 양산 부산대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 13분이야!**

엠블런스에 신고 도로를 달려가도 40분이 걸리는데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며,놀라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 사고가 안나면 다행인 상황에

부영이 바위 위에서 세영병원까지 도착하는데 그 절반인 20분이 걸렸다고
니가 무슨 슈퍼부영이냐? 아니면 본래부터 죽일 계획이라 심장이 평온했던 것이냐?
혹시 너도 고향이 봉하마을이라 세영병원 가는 길을 통달했던 것이냐?
아니면 범행전에 미리 동선 코스를 답사해놨던 것이냐?
봉하마을 택시기사가 가도 니보다는 느리겠다.

결국 답은 하나.

최종적으로 일을 마무리한 장소가 부영이 바위 아래가 아닌 세영병원에서 가까운 장소였다는 뜻이지!

더 간이 오그라들게 만들어 줄게!

거기에 세영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과장과 노전대통령만 왔던 것이 아니라

경호실 차량에 비서진과 경호팀이 동승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건 무엇을 증명할까?

이동시간이 플러스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

사저를 나갈 때는 돌이서만 나갔는데 비서진과 경호팀이 동승해서 세영병원에 왔다는 말은

결국 이과장이 노전대통령을 싣고 사저에 들러 비서진과 경호팀을 태웠던지,

아니면 이과장이 무전을 해서 비서진과 경호팀이 사고장소로 왔다는 뜻이지!

어때? 부영이 바위 꼭대기에서 세영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20분이 아니라

이 시간만 해도 20분은 걸리지!

결국 답은 하나.

틀린 그림을 찾았나?

그렇지 바로 그거지!

노전대통령과 이모과장은 차를 타고 나오지 않았어!

즉 이모과장이 무전을 해서 사람들을 불렀다는 뜻이지!

다음 과정을 볼까?

심장이 멈추도록 만들어 주지!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렇게 발표했지!

"수행 경호과장이 사고 직후 무전 등으로 문모 비서관에게 연락했고 문 비서관으로부터 다시 연락받은 박모 비서관이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유서를 처음 발견했다."

유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동행한 이과장으로 부터 무전을 받은 문 비서관에게 연락을 받은 사저의 박모비서관이었어!

이거 완전한 그림이 나오잖아?

이과장은 현장에, 박모 비서관은 사저에, 그럼 문 비서관은 어디에 있었던 건데?

(차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서 이동시간이 빨랐던 것!)

그리고 **노전대통령이 추락했다는 무전을 받고 노전대통령의 컴퓨터 바탕화면부터 확인한 박 비서관은 뭐하는 새긴데?**

이거 완전히 미친놈 아닌가?

세상에 어떤 상식있는 인간이 전직 대통령이 암벽에서 추락했다는 무전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 부터 확인하나?

상식적으로 경호원이라면 추락했다는 무전을 받자마자 만사를 제쳐두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거 아닌가?

방으로 들어가려면 권여사에게 먼저 알렸어야지!

처음부터 컴퓨터 조작하는게 임무가 아니라면 어떤 미친놈이 추락했다는 무전받고 노전대통령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부터 확인해?

이건 완전히 책을 나는 조폭들이야!

현장(행동대원)조, 운송대기조, 마무리조.

다시 현장으로 이동해 볼까?

너희들은 한가지 사실을 간과했지!

거기엔 노전대통령을 진짜 지켜주려는 착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

경비3초소에 있던 순진한 전경 1명이 오전 6시 20분 경호상황실에 '현재 노 전 대통령이 부영이바위에 있다'고 보고했어!

25분 전에 부영이 바위 위에 있는 것을 목격한 전경,

그리고 25분 전에 부영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보고받은 경호실 요원들이 모두

200미터 뒤 30미터 암벽에서 성인남자가 추락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머느리 들인가?

세영병원으로 가보지!

세영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노전대통령은 피범벅이었어!

게다가 피가 많이 묻은 노전대통령의 상의 또한 발견됐지!

어머! 그런데 이거 미안해서 어찌나?

노전대통령은 피범벅이 되어 세영병원에 실려오고,

노전대통령의 피묻은 상의는 발견이 되었는데 어째 현장에서 노전대통령의 혈흔은 하루가 지나도록 발견을 못한거야!

아직까지도 어디서 얼마만큼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정당한 소식이 없네!

참 신기하기도 하지?

피범벅이 된 사람,피묻은 상의가 벗겨진 사람이 왜 현장엔 그토록 혈흔찾기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을까?

답은 하나.

노전대통령은 그곳에서 살해된게 아니었기 때문이지!

후후후~ 범인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릴줄 아는 놈이었지만 법의학 상식이 부족한 놈이었어!

암벽에서 추락을 해도 상의는 벗겨지지 않는 단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

명청한 범인은 노전대통령이 이곳에서 굴렀다는 증거를 꾸미기 위해 상의와 등산화 한쌍을 이용했지!

그런데 바보같은 놈이 상의의 위치를 잘못 잡은 거야!

상의는 낙하지점으로부터 11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

나무에도 걸리지 않았는데 상의가 벗겨져 11미터 밖으로 도망가 버리는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왜 11미터 일까?

답은 두개야!

하나는 부엉이 바위 위에서 상의를 던진 것이지!

둘은 다른 곳에서 급하게 그 지점에 상의를 갖다 놓느라고 아무데나 놔버린 것이지!

경찰은 상의가 이과장이 노전대통령을 업고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졌을 것이라 말했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결국 경찰도 추락하는 동안은 상의가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추락하는 동안에도 벗겨지지 않던 상의가 업고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져?

그렇다면 그것은 떨어진게 아니라 일부러 벗긴 것이지!

범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이유는 단하나.

피해자가 항상 품에 간직하고 다니던 물건을 노릴 때이지!

여태까지 내가 올렸던 모든 추론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을 대충대충 넘겨 빨리빨리 끝내기 위해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미리 서로 입을 맞춘 것이 아니고 사건의 진행동안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이 어긋나고 있는게 분명해!

먼저 노전대통령을 수행한 경호과장의 진술은 100% 신빙성이 없으며

그에 따라 노전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23일 오전 6시 45분에 뛰어 내렸다는 부분부터 다시 재고가 되어야 해!

일단 떨어진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밀려 떨어진 것인지,아니면 위협을 피해 뛰어 내린 것인지도 분명치가 않아!

분명한건 단 한가지 사실 뿐이야!

노전대통령과 이모경호과장이 단둘이 사저를 나갔다는 것!

그게 산책이었는데,그 방향이 부엉이 바위였는지,

둘이서 밖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는데 아무 것도 결론을 내릴 수 없어!

개판.

수사법이 바뀌어야 해!

사건이 일어나면 지방경찰은 국과수가 올 때 까지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일체의 출입을 금지 시켜야 해!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동네경찰이 수사를 한다는게 말이 되나?

정말 노전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졌다면 사저의 경호원들은 바로 통제에 들어가야지!

23일 오전 6시 45분 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하마을을 들락거리고 사건현장을 오갔나?

무개념.

그 자체가 이미 범행인거야!

.....를

난 대한민국 경찰의 노력과 양심은 믿지만 실력은 인정할 수가 없어!

노력이고 양심이고 간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건 지능이고,실력인거야!

미국이나 영국의 수사팀이 와서 조사후 자살발표를 하기 전에는

내 홈페이지에서 만큼은 타살로 잠정 결론 내리겠다.

추리는 상상이 아니라 검증과 실험을 통한 과학적 인과론이야!

추론을 음모론이라 칭하는 무식한 나라는 미개한 후진국 한국이 유일하지!

내가 가진 최고의 의문점은

63세의 노인이 자살을 마음먹고 30미터 높이 70도 경사각의 암벽 위에서 뛰어 내렸는데

과연 3시간 동안이나 특별한 조치도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게 가능할만큼 살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야! (그것도 사인이 두부손상인데 말이야)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가장 의문을 갖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추락했으면 척추를 비롯 온몸의 뼈가 다 절단이 났을텐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경호원 혼자 업고 가서 승용차로 병원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그건 아주 간단한 문제야!

즉 척추도 온몸의 뼈도 멀쩡했다는 뜻이지!

추락해서 절단난 사람을 어떻게 혼자 업고 갔느냐? 가 아니라 멀쩡했으니 혼자 데리고 간 것이지!

여기선 두가지 결론이 성립되는 거야!

하나는 자살하려고 뛰어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고 몸을 보호해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은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암벽에서 추락한게 아니라는 것이지!

봉화산은 경남 김해에 위치한 시골산이지만

부영이 바뀌는 사저에서 20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알잖아? 당시 사저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이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특종거리와 볼거리를 노리고 있었는지

그런데 30미터 높이에서 먼지가 아닌 성인남자가 추락하는 것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어!

시골마을을 고요한 아침 조그만 돌맹이 하나가 굴러 떨어져도 그 소리는 상당한 파장력을 소유하지!

사람은 자살을 한다 해도 긴 비명은 아니라도 충격으로 인한 단말마의 소리라도 내지르게 되어 있어!

아무도 보지 못했고,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

덧붙여 새로운 사실 하나가 나왔지!

권양숙 여사도 산행에 동행하려 했어!

분명 혼자 올라간 남편이 궁금해서 봉화산 쪽을 수시로 쳐다봤을 거야!

아니 일부러 쳐다보진 않았다 해도 신경이 봉화산 쪽으로 쏠려 있었겠지!

왜 암벽에서 떨어진 사람이 머리가 깨져야지 하필 정수리 부분에 찢어진 상처를 남기나?

궁금하면 머리통을 바위에 박아 보라고 과연 정수리가 찢어지나?

박은게 아니라 맞은 거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것은 어떤 분야로도 논리적인 설명이 안돼!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명 **몇주전부터 계속 우울한 기미를 보였다고**들 증언했어!

그런데 유서를 자살하러 나가기 20분전에 남기나?

범의학적으로 살펴 볼까? 3백미터 암벽에서 추락해도 점퍼는 벗겨지지 않아!

점퍼가 벗겨지려면 팔을 벌려야 하는데 추락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팔을 웅크린다고

성인남자가 떨어지는데 나뭇가지 정도에 걸릴 거 같나?

걸리더라도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점퍼가 찢어지지!

나무에 걸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았어야지!

나무에 걸려 살아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점퍼를 벗어 버리고 도망치는데 쫓아가서 각목으로 후려쳤다던 말이 되지!

지능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론이 나오면 소설을 쓴다고 빈정대는 거야!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

이번 사건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그러 원래 계획대로 죽었어야 하는데 안죽었으니 어쩌겠나?

범인은 목표가 어긋나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후회가 밀려 오는거야!

죽일 사람이 멀쩡하니 최선을 다해 살리는 수 밖에

그런데 살아있던 사람이 진짜 죽었어! 언제?

청와대에 전화하고 병원으로 이동해서 도착하는 동안에

40분전엔 가망이 있어서 큰 병원으로 옮기는데

40분뒤엔 이미 심폐소생술도 못할만큼 저승사람이 되어 버리나?

누굴 바보로 아나?

그건 니들같은 닭대가리들이나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죽을 사람이면 세영병원에서 죽게 내비두고 사저의 권양숙 여사한테 먼저 전화를 하는게 순서이고

옮겨서 살 사람이 40분만에 송장이 됐다는건 옮기는 40분동안 죽었다는 뜻이지!

처음부터 세영병원은 예정에 없던 돌발수였지!

암벽에서 추락해도 바로 죽지 않았다든 것 자체가 변수였으니까

원래 계획은 암벽에서 추락. 즉사하거나 의식이 없었다면 바로 부산대병원으로 가는 것이었지!

그러니까 니가 바보인 것이지!

청와대에 중간 보고는 왜 하나?

그러니까 니가 똥줄타는 아마추어인 거야!

봐라!

청와대에 보고를 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완전히 서거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게 아니고 그토록 급하게 먼저 해야 했다면 떨어지자마자 했어야지!

세영병원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다는건 뭔가?

일이 틀어졌단 얘기 아닌가?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서 싸인하나 해주지!

난 이모과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3의 인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임무를 완수하면 니놈은 살 수 있을 것 같나?

니놈도 삼년안에 죽을테니 두고 보라고 그리고 집착해서 기다릴 필요도 없어!

내가 아무리 베풀을 즐겨한다 해도 이런 내용을 공문화 시키지는 않으니까

중요한건 어떤 글이나 하는 것이지,어디에 쓰면 어떠한가?

내가 쓴 글은 들고 도는 동안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결국엔 들어갈 사람 귀에 다 들어가더라고

2009.05.25 월 03:54

많은 사람들이 고 안재환 씨의 누나를 욕했지만

난 안재환 씨의 누나와 타고난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기에 그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이 동생의 불행과 의문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기를 아직까지 응원하고 있다.

무기력하고 무지하며 가증스런 인간들.

그게 한국인들의 공통점이다.

국장? 꼴값떨고 있네!

자살한 전직 대통령이 무슨 명예가 있다고 국장을 치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자살로 끝나면 노무현의 명예는 없는 것이다.

노무현이 죽음으로 누가 이득을 보냐고?

노무현이 자살을 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노무현 자신이다.

국민들 가슴속에 영원히 축은하고,불쌍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은 명예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고,분향소를 찾아가지만

그 눈물과 발걸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국민들이 흘렸던 그 눈물과 발걸음이 아닌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이 서거가 되고 노무현의 명예가 지켜지기 위해선 그의 죽음의 본질적 원인 자체가 격상 되어야지

장례형식 따위가 격상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명복은 무슨 얼어죽을

허구한 날 명복을 빌면 죽은 사람이 살아오나?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눈물 흘리고, 아쉬워 하고, 명복 빌고 다 부질없고 가증스런 짓거리들이다.

진짜 애정은 그렇게 아니다.

진짜 애정은 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진짜 애정은 떠난 자의 영혼이 잘됨을 비는 것이 아니라 떠난 자의 이름이 잘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진짜 애정은 잊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 하는 것이다.

진짜 애정은 분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루트를 답사하는 것이다.

사랑은 주먹으로 발로 심장으로 하는 것이지! 세치 혀로 하는게 아니다.

장난하나?

노무현이 담배 못피워 한맺힌 사람인가?

유시민이 대표로 한대 피게 했으면 됐지!

월 줄나라비를 서서 담뱃불을 붙여놓나?

한국인들은 그저 모든게 형식. 오직 같잖은 형식일 뿐이다.

모든 추측을 미루고서라도 본래 경찰의 공식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죽음은 그냥 죽음일 뿐이다.

지금이야 공식발표가 나왔지만

이 나라는 어찌된게 경찰의 공식발표가 나오기도 전까지 사람이 죽기만 하면 무조건 다 자살이다.

야 이거 진짜 죽어도 한국에서는 죽지 말아야지!

나처럼 자살을 혐오하는 사람이 어느날 죽어도 이 나라에선 바로 자살로 종결 처리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절대 자살을 안할 사람들은 미리미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그건 절대 자살이 아니라고 알려두어라!

그래야 당신이 죽었을때 주변 사람들이 자살이 아님을 알게 아닌가?

이 나라에선 꿀먹은 벙어리처럼 살다간 어느날 억울하게 죽어도 당신은 분명 자살자로 처리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가 죽어도 이토록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지는 않는다.

언제 제대로 된 수사라도 한번 해보았는가?

이건 완전히 "죽었다. 끝났다." 이다.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미 죽어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지자를 마저 집단최면에 흘린 듯이 총체적 무지에 빠져 깊은 영혼의 웅덩이를 헤메고 있다.

무기력한거 착한거 아니다.

대가리 나쁜거 자랑 아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거 올바르게 사는거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된 새끼들, 죽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새끼들이 바로 음모론을 퍼지 말라는 놈들이다.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서 [닥치고 명복이나 빌어주자] 는 놈들을 전부 잡아다가 조사를 해야 한다.

역사는 증명한다.

"대대로 입다무는 것들치고 죄없는 놈 없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머리가 좋은 죄 뿐!

무식한 인간들이 내글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내글이 틀린 글이 되는 것은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글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년 뒤에 이민갈 계획인가?

한나라당은 3년 뒤에 대통령 후보 내세우지 않을 작정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정부여당을 위해 전직 대통령의 죽음엔 한점 의혹도 없는 객관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건 타살이 아니라도 의문사이다.

제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물어보라!

예순 넘은 우리 어머니도 노무현은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 했다.

이 나라엔 젊어도 늙은 놈들, 무기력하고 무식하고 착한척 하는 역겨운 위선자들로 가득차 있다.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범인이라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닥치고 명복이나 빌어 줘시다."

닥치고 명복이나 빌어주자는 놈들 글과 내글은 이미 문장의 레벨 자체가 다르다.

사람들이 니놈보다 할일이 없어서 의문을 제기하겠는가?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대충 대충 좋은게 좋은거 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을 전부 쓸어내야

이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걱정마라!

니가 죽었을 때는 닥치고 명복이나 빌어줄 테니...

2009.05.26 화 05:21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아마추어가 노전대통령이 자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가 제 무덤을 파고 있네!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5일 발표하기를

노전대통령이 서거 당일(23일) 정도원에 갔었다고 말을 했네!

대한민국엔 범죄심리학자가 단 한명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완벽한 증거가 나와도 그냥 자살로 처리하고 화장을 해?

봐라!

정도원이란 곳은 노전대통령이 뛰어 내렸다는 부영이 바위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야!

그리고 노전대통령과 경호과장이 **정도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6시 30분.**

그런데 내가 앞선 글에서 분명히 언급했었지!

경비3초소에 있던 전경 1명이 **오전 6시 20분 경호상황실에 '현재 노 전 대통령이 부영이바위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그렇다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살하는 사람이 일단 부영이 바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정도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부영이바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렸다고?

푸하하하~ 플로리다에서는 그렇게 증언하면 정신병동행이다.

자살하는 63세의 전직대통령이 혼자도 아니라 경호원을 대동하고 일단 부영이 바위 위로 올라가서

전경에게 자신이 부영이 바위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다시 200미터 이상이나 떨어진 정도원으로 내려가서 "저 자살하는거 맞습니다." 하고 흔적을 남겨주고

또 다시 200미터 이상이나 떨어진 부영이 바위 위로 올라가서 뛰어 내렸다고?

천만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첫째 자살자가 자살할 장소에 왔다가 그곳을 벗어나 다시 그곳을 찾아와 자살을 했다는건 범죄심리학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얘기고,

둘째 무슨 유격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몸도 안좋았다는 63세의 노인이 험한 산길을 25분안에 왕복했다는건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돼!**

봐라!

오전 6시 20분에 부영이바위 -> 오전 6시 30분에 정도원 -> 오전 6시 45분에 부영이 바위에서 투신.

컨디션 안좋은 63세의 할아버지가 무슨 바쁘게 자살할 일이 있었나?

만약 진짜 노전대통령이 부영이 바위까지 올라왔다 내려가 정도원에 들러 다시 부영이 바위로 올라가자 말했다면

그순간 바보가 아닌 정상적인 경호원이라면 모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거야!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노전대통령을 그대로 절벽가까이 가도록 놔둔 것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중대한 경호과실이지!

이 트릭을 깨주지!

너희들은 언제나 한명이야!

대동한 경호원도 한명, 부영이 바위위에 있는 노전대통령을 목격한 전경도 한명.

내가 저번글에 언급한대로 노전대통령은 부영이 바위에서 떨어지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노전대통령은 부영이 바위에 가지 않았어!

노전대통령이 부영이 바위위에 가지 않았다면 경호원이 부영이 바위에서 내려오는 시간은 없어지기 때문에

세영병원에 얼마나 빨리 도착했건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6시45분에 투신을 했는데 세영병원 도착시간은 7시라는건 도저히 말이 안되지만

6시40분에 부영이 바위 아래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세영병원 도착시간이 7시라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것이지!

처음 계획은 노전대통령을 부영이 바위에서 밀어 버리는 것이었지!

그래서 뛰어내렸다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 전경 한명이 목격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

자신의 위험을 직감한 노전대통령이 갑자기 정도원으로 발걸음을 돌려버린거야!

확실한 공포가 엄습해 올 때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지만

위험이 직감적으로 느껴질 때 피해자는 싸인을 남기는 법이지!

정도원은 노전대통령이 남긴 표식이야!

어떡하나? 따라가는 수 밖에!

그런데 거기서 부처님의 도움이 계셨지!

선진규 정토원장은 경호원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이렇게 물었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람이 정토원에 찾아오면 그 첫인사를 "무슨 일이 있으시나?" 로 하는 원장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만큼 무슨 일이 있어보였던거야!

그런데 재밌는건 선원장은 자살하려던 노전대통령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던게 아니라

따라온 경호원과 눈을 마주친후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

왜 그랬을까? 경호원이 자살하려고 맘먹은 것도 아니었는데 경호원의 눈에서 뭘 느꼈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경호원의 대답이 해답을 말해주지!

무슨 일이 있냐는 선원장의 질문에 경호원은 이렇게 대답했어!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게 상식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지!

경호원의 정상적인 대답이라면 "네 각하께서 오셨습니다." 였겠지!

아무 것도 아니다란 대답은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누가 갑자기 "너 뭐하냐?" 라고 물어오면 "아무 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많은 말을 걸어오지 않기를 바랄 때,빨리 이 상황이 끝나주기를 바랄 때

바로 아무 것도 아니란 대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야!

어디까지 연결되고 누구까지 엮여있니?

24일 있었던 경찰의 브리핑에선 노전대통령이 정토원에 들렀다는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

경찰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스스로 은폐한거니?

그건 아니었겠지!

그런데 왜 25일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표가 나왔을까?

목격자인 정토원 원장님은 매수를 못했기 때문이지!

게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니 정토원에 들렀다고 발표를 하는게 자살의 당위성을 높여줄거라 착각했던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대한민국에도 나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

여기가 만약 미국이나 영국이었다면 뒤집어질 일이야!

한국에서 권력을 누리는데 하늘에 감사하고 겸허하게 살아가라!

내가 왜 이런 글을 자주 올리냐고?

자존심이지!

내 머리에 대한 자존심.

난 내가 억울하게 죽는건 용서해도,바보같이 속아 넘어가는건 절대로 용서못해!

뭘 고개를 가우뚱 거리니? 미련한 놈아!

나를 죽이는 남은 용서해도,속아 넘어가는 내 자신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2009.05.27 수 00:27

하하하~ 어떠니? 핏덩이들아^^

몸에 힘줄 있으니 사람 죽이는게 쉬워 보였지?

*만한 핏덩이들이 이 넓은 세상에 어떤 잘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깔치고 있네!

나원 갈잡아서

내가 얘기했지?

위험을 직감한 노전대통령이 발길을 정토원으로 돌렸다고

거기서 니가 정토원장이랑 눈 마주쳐서 버벅대는 사이에 노전대통령이 자살하러 부엉이 바위로 혼자간게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을 친 것이지!

놓쳐? 뭘 놓쳐?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작당을 한게 아니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전을 왜 치냐?

노전대통령이 자살할 거란걸 미리 알고 있었어? 아니잖아!

니가 무전을 칠 그때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 였어!

그런데 괜히 굶어 부스럼 만들 무전을 왜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잖아!

넌 깜짝놀라 무전을 쳤지?

왜 쳐유까?

세 았글기 :

바로 유서를 맡은 놈 때문이었지!

난 처음부터 왜 유서가 바탕화면에 떠 있었을까? 생각했어!

바로 이제 그 이유를 알게됐지!

사저에 남아있던 공범은 노전대통령의 컴퓨터가 있던 방에 두번을 들어간거야!

한번은 유서를 작성하러, 그리고 또 한번은 놓쳤다는 무전을 받고 유서를 삭제하러

그런데 **인기척이 들리자 미쳐 유서를 삭제못하고 급하게 컴퓨터도 못꺼내 방을 나와버렸지!**

무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놓쳤다", "보이지 않는다"

넌 형사가 아니라 경호원이야!

전직 대통령이 무슨 범죄자니?

니가 쫓아가서 뭔가를 해야할 입장이 아니라면 놓쳤다면 무전은 맞지가 않지!

폭행치사가 아니라면 노전대통령의 시신을 일본인 의사에게 정밀검사 하도록 맡겨봐!

한국은 독립할 지능이 안되는 나라.

난 일본인 만큼은 믿는다.

그래!

"놓쳤다", "보이지 않는다" 고 치자!

그리고 노전대통령이 널 따돌리고 부영이바위에서 투신했다고 치자!

그럼 너는 정말 용한 점쟁이로구나!

부영이바위는 정토원 바로 옆에 있는 바위가 아니야!

아무리 봉화산이 뒷산이라도 거긴 서울이 아니지!

녹음이 우거진 5월의 시골산에서 200미터나 떨어진 부영이바위 아래 노전대통령이 쓰러져 있을 줄 넌 도대체 어떻게 알았던 것이니?

내가 치명타를 날려 줄게!

너희들은 한놈이 아니었던 것이지!

도망치던 노전대통령이 부영이 바위 아래에서 다른 놈과 마주쳤던 거야!

바로 등산객이 만났다면 혼자 거닐던 경호원은 니가 아니라 그놈이었지!

정토원에서 놓쳤다고 무전을 치던 니가 부영이바위 아래 쓰러져 있던 노전대통령을 찾았다는건 말이 안돼!

넌 뒤에서 쫓아가고 한놈은 부영이 바위 아래 숨어 대기하고 있었지!

왜? 부영이 바위에서 밀어버리는게 애초 계획이었으니까 그놈이 거기 있었던건 본래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던거야!

만약 노전대통령이 정토원에 들렀다 도망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셨겠지!

그런데 도착해야 할 시간에 도착을 안하니 궁금해서 숨어있다 나온 것이지!

그래서 등산객을 만나게 된거야!

너더러 사람들이 순간이동 했냐고 하더러!

어떻게 부영이 바위에서 세영병원까지 20분만에 노전대통령을 옮기며 도착했는지

이젠 답이 나오잖아!

처음부터 부영이 바위에서 내려올 일이 없었고,너흰 하나가 아니었으니까

분명 세영병원에 도착했을때 너희들은 한명이 아니었다고 증언이 나왔지!

먼저 각목으로 두정부를 내리쳤니?

정신을 잃고 쓰러진 노전대통령의 양발을 붙잡고 배쪽으로 내리 눌렀니?

그래서 등산화를 양쪽다 벗겼다가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한쪽은 다시 신겼니?

노전대통령이 도망치는 사이 메모라도 남겼을까봐 주머니를 뒤지려고 상의를 벗겨니?

직접사인은 두부손상, 그리고 **뼈들은 이곳저곳 부러졌는데 신기하게도 장이 파열됐다는 소견은 듣지 못했거든!**

난 처음부터 의심을 했었지!

암벽에서 자살하려 한 63세의 노인이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숨이 붙어 있을 수 있으며,혈흔 찾기가 힘이 들었을까?

니가 한번 **30미터 암벽에서 죽기로 마음먹고 뛰어내려 볼래?**

니무이 심하게 디그 추락자살에 혈흔이 어떤 내내?

너들이 어떻게 저고 추격경호에 맡기는 겁니까?

그래서 니들은 아마추어.

폭행으로 추락사를 꾸미려니 대중 모양새는 유지했는데 장들 파열을 못시키고,

뼈들을 분산시키지 못하고,피를 많이 뽑지 못했던거야!

하지만 의사들이 바보는 아니야!

언제 의사들이 제대로 된 정밀검사라도 할 여유가 있었니?

그대로 세영병원에 남아 있었다면 의사들도 의문을 제기했을 거야!

그런데 병원을 옮겼지!

왜?

세영병원은 애초에 목적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왜 세영병원으로 갔을까?

엔딩타임 오전 7시 20분을 초과했기 때문이지!

원래 계획은 오전 6시 30분에 노전대통령을 부영이바위에서 밀어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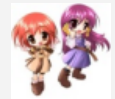
곧장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가는 것이었지!

그런데 도망친 노전대통령 때문에 시간이 초과되니까 일단 세영병원으로 갔던 것이지!

트랙백 주소 :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317844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68005>

아고라-다음



written by 치세 (shionjpn)

2009-05-27 19:07:46

58217 번 읽음

목록보기

글꼴(+)

글꼴(-)

프린트

이메일

PDF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기

1. 치세 '09.5.27 9:28 PM

신고



NADA

진실이 밝혀지기를! RT "@tnsqhr6554: RT @rkdxk55555: 정말 충격~! 법의학자가 밝힌 노무현대통령님 타살 증거들~! #바람소리"

10 May

는 그들이 대통령과 경호관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날 3명의 경호관이 부영이 바위 밑에서 노 전 대통령 수색작업을 했다는 발표와는 다른 대목이다. 이들 부부는 "집에서 나와 발일을 시작하는 데 걸린 시간이 길게 잡아도 10분 이상 걸리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 투신 시점은 '6시10분에서 20분' 이내로 추정했다. 또 경호관이 노 전 대통령을 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시간은 6시30분 전이었을 것으로 기억해냈다. 발일을 끝내고 귀가한 시간이 6시30분 전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씨 부부는 또 경호원이 최근 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정토원에 다녀온 뒤 등산객이 다가오는 것을 봤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발이 등산로 바로 입구에 있는데,당시 등산을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혜=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2009.05.27 18:32 이 시간에 한국경제신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경호원이 다시 진술했다는 말과도 또 다릅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타살은 아니라고 믿고싶지만 마심찍은 것이 한두개가 아니네요

강지휘 (05.27 21:23) [댓글에댓글](#)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 [-]

그림 no file selected

홈페이지 운영하세요? 용량과 트래픽과 가격으로 고민하셨어요?
비씨파크 평생 무제한 웹호스팅

-
-
-
-

BCPARK.net
since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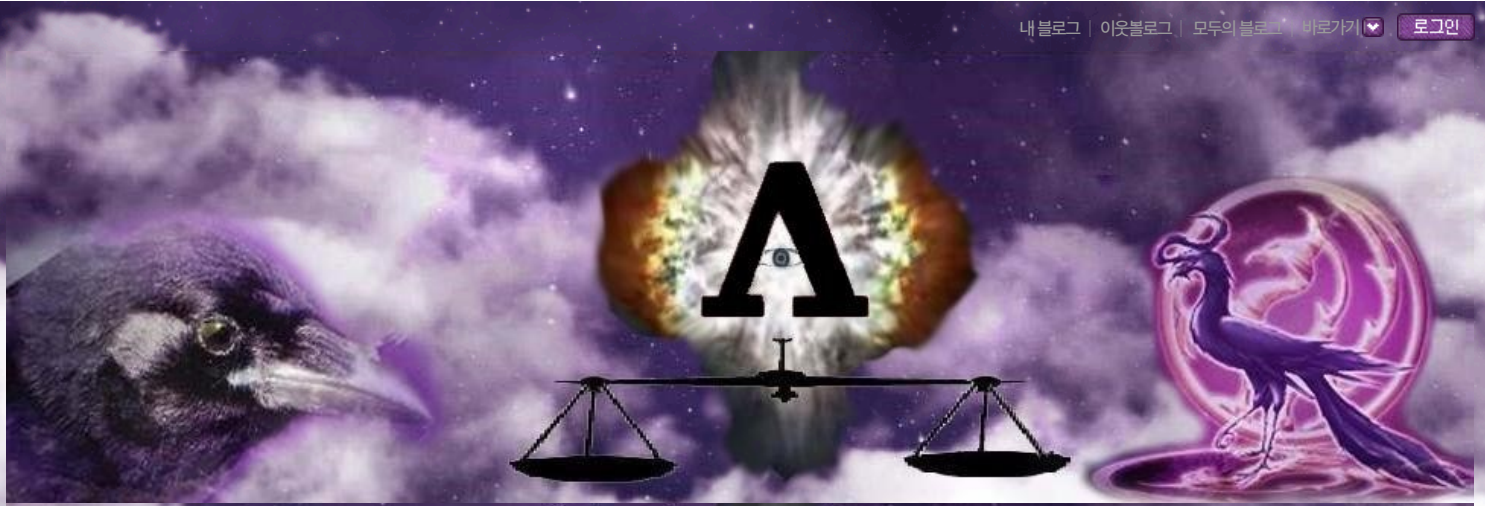
(주)비씨파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서초 03865 | 부가통신사업자신고번호 : 8185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43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MSN : bcpark@bcpark.net | NateON : bcpark@bcpark.net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 저작권안내: (주)비씨파크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쇼핑물안내: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14 BCPARK Corp. All Right Reserved.





아수라 (godemn)

눈이 있으면 보고 뇌가 있으면 생각 하라

프로필 | 쪽지 | 이웃추가



카테고리

전체보기 (599)

필독 (2)

공지 (88)

주요글 안내

진실의 숲 (217)

교육 (31)

일상 (51)

시사 (111)

진실판독 (13)

타운실록 (11)

안티중국 (106)

안티중국 개요 (21)

장기적출,인육 (29)

다문화과정 (56)

Anti China (10)

- [공지] 새로운 사이트 개설에 대해 알림과 홍보영상 (24) 2013.08.02 23:21
[공지] 여름에 기침환자가 늘어나는 이유와 맹독성 스모그 경보 (15) 2013.07.29 17:20
[공지] <뉴스영상> 2012년 한해 실종자 9만5천명 (36) 2013.06.03 01:15
[공지]페이팔 계정&후원계좌 안내 (99) 2012.07.28 00:41
[공지] 오시는 분들께 몇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46) 2012.06.20 23:58

진실판독 (13)

목록열기

노무현 타살설에 대한 판독과 결론 | 진실판독 / 진실의 숲

2012/06/11 01:31

http://blog.naver.com/godemn/20159730599

전용뷰어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노무현을 싫어하는 이도 많고 본 필자 또한 별로 좋게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그 사건이 대한민국 건국한지 50여년동안 몇손가락안에 드는 대형사건임에는 호불호를 떠나 부정할이는 얼마 없다고 본다.막말로대통령이 암살당한적은 있다지만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소린 들은적도 없고 본적도 없지 않는가?

참고로 본 필자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할 당시에 별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은 아니었다.지금이야 한국이 기동까지 썩어 아주 개 막장중의막장인 상태라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일단 조금이라도 낚새가 보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를 강하게 불신하는 태도를견지하게 되었으나,노무현이 사망했을 그때 당시만 해도 '설마' 아무리 막장이더라도 살인까지 국가가 조작할리는 없다는 생각이 강해서 별로 알아볼 의욕도 없었고,그 당시 간단히 논평하길 노무현이 타살이라면 되려 민주당쪽이 사주할 가능성이 높고 한나라당쪽은 비교적 낮다는 유보적 태도에 약간의 확률을둔채로 그냥 자살 쪽으로 결론내렸다는것이다.먹고살기 바쁘네 그닥 관심도 없던 전대통령 자살사건까지 파헤쳐볼 여유따윈 본 필자에겐없었던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르다.이혹 어린 자살이 무슨 씨부릴 한두건이어야 그냥 믿고 넘어가주고 말고 하는것이지, 이건 아예 자살이라고 결정한 사건중에갈끔하게 넘어가는 사건자체가 매우 드문것 같다. 앞서 짚어봤던 손문건 사건은 아예 경찰이 대놓고 용의자 쉴드쳐주는 상황이고,안재환 사건도 무슨 시체가 7일만에 피까지 마르도록 썩었다고 한다.안재환이 자살한 차는 무슨 정신과 시간의 방처럼 시간빨리가는 장치라도달라있는 공간인가? 거기다 비교적 마른체격의 박원순 아들은 병원가선 갑자기 돼지로 변해 mri를 통과하질 않나,아무리 기간 살펴봐도초중고 기간도 해결안된 캐나다산 딸똥이가 피해자 행세를 해가며 규정에도 없는 스탠포드 조기졸업 증명서를 떼어오질 않나,도축경험도 없는 초범새끼가 갑자기 프로페셔널한 인간백정으로 돌변해 사람의 뼈와 살을능숙히 분리해 균등크기로 절단을 행하지 않나,나라에 마술과 기적이 유행하는것이 간혹 지금 본 필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술과 기적이유행하는 중세시대가 아닌가란 생각도 들 수준이다. 이견 아예 제도적으로 사기치는 종자들이 나라에 빌붙어있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할수밖에 없는바,별 관심없이 무심코 지나쳤던 노무현 사건도 재조명 해보니 뭐 이견 보자마자 타살임을 알수 있을정도로개허술한 날조극의 연속이었다는것.어디가 날조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는 각 쟁점을 유발했던,검찰발표자료,유서,CCTV,기사날짜,틀게이트 CCTV등을 분석하여,진위를 구분하고,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수 있도록 기존의 자료들을 재구성해보는 방향으로 써내려가겠다는것을 알리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1.검찰발표자료

솔직히 노무현의 자살이 개구라라는것은 많은 자료 필요 없이 검찰 수사결과와 발표자료만 봐도 명확히 답이 나오는 수준이다.일단 검찰 발표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캡처해서 올리면 다음과 같다.

활동정보

블로그 이웃 2,264 명
글 보내기 0 회
포스트 스크랩 4,846 회

사용중인 아이템 보기

TODAY 785 TOTAL 2,407,571

- Anti China (10)
- Master's (3)
- Guest's (7)
- 스포츠 (53)
- 옛날글모음 (39)
- 객원칼럼 (83)

검색

최근덧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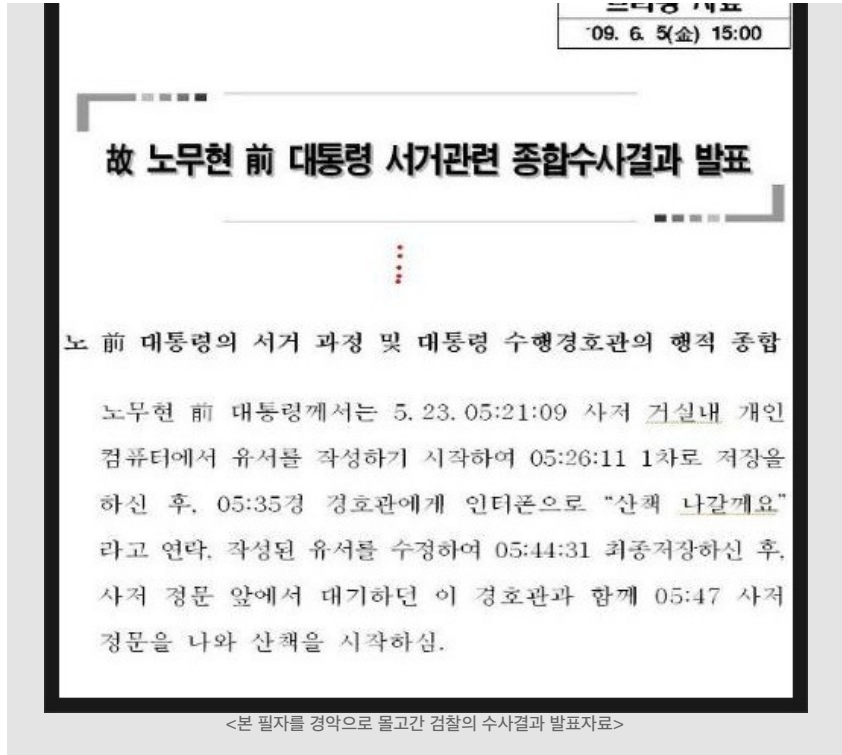
- 시위를 성스런 투쟁으로 착...
- 서울역 분신사건에 대한 분...
- 일상에서 볼수 있는 장기적...
- 줄지어 이어지는 8대 시체...
- 제주도 올레길살인 전말과 ...

다녀간 블로거

- tikhij_han님의 블..
- 풀 하사의 보급급
- ㅎㅎ
- ㅎㅎ
- hj960809님의블로그

이웃 블로거

RSS 2.0 | RSS 1.0 | ATOM 0.3



이것을 보고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쳐맞는 충격에 빠졌는데,이새끼들은 사기치는것의 기본도 안되어서 경악을 금할수가 없었다.검찰의 야심찬이 발표 자료 말대로라면 노무현은 이런 자살을 했다는것이다.

첫째.잘자고 일어나남
 둘째.일어나자마자 유서를 키보드로 존나 걸김
 셋째.유서작성시간은 5분
 넷째.죽으러 뛰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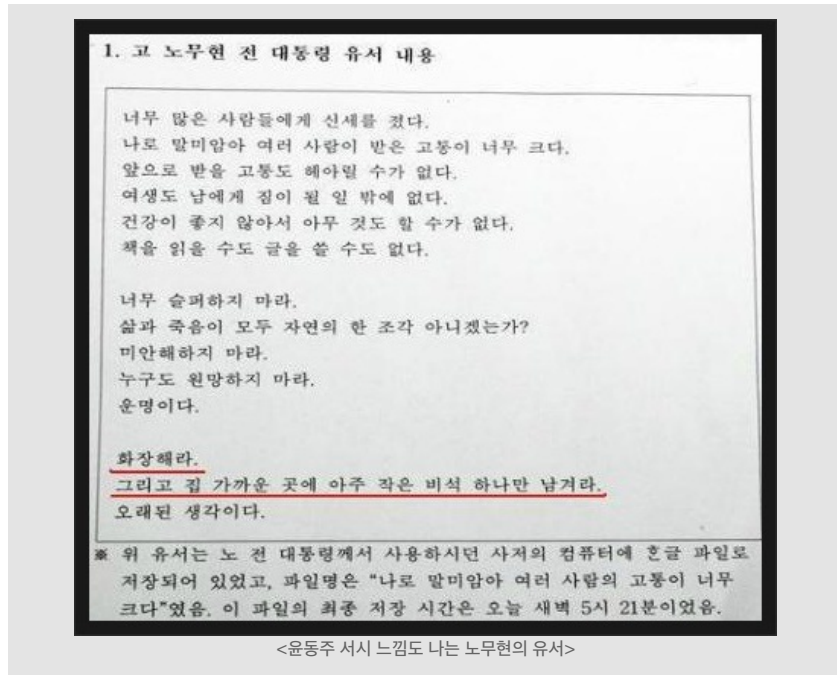
딱봐도 뭐 어떤 허술한 개구라를 까는지 그야말로 미친놈들 아닌가? 일단 자고 일어나자마자 유서를 썼다고 발표하는것 자체가 개그적 수준의 극치다.죽을생각이면 각오했을때 죽지,어느 미친놈이 자고 일어나자마자 죽을 생각하나?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광석화 같은 유서를 썼다는건 전날 이미 죽을생각하고 잠이 들었다는것이다.아니 죽으려면 자기전에 죽어버리지어느 미친놈이 잘자고 다음날 아침에 죽을생각하나? 무슨 담앤더머 찍으시나?한숨 잘자고 일어나자마자 유서쓰고 절벽으로 고고쌍을 하는걸 진실로 믿어달라?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미 엮기적 개그 영화에서나 나올 병신같은 개구라임이 틀림없고,또 정말로 노무현이 괴짜중의 괴짜라 죽을생각을 해도한숨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죽을 생각을 한다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쳐도 유서정도는 자기전에 써두는게 그나마 '덜' 엮기다.자기전에유서써재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살하러가는것도 웃길판에 유서를 아침에 인나서 썼덴다.장난하시나?무슨 백수새끼 쳐자고 일어나자마자 발가락으로 컴퓨터 키는것도 아니고 저게 지금 말따구 나 된다고 저걸 수사결과 발표자료라고 써부리는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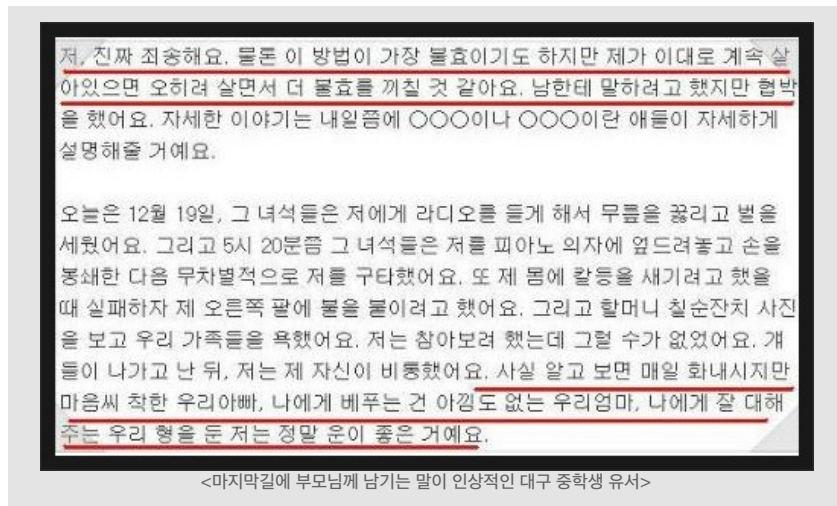
그리고 이것말고도 문제가 수천가지다.유서를 무려 컴퓨터로 썼다.항간엔 무슨 유서의 법적효력 어쩌구 하며 컴퓨터로 작성한 유서는 효력이 없는데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이 그럴리 없다는걸 근거로 날조라고 주장 하는데,사실 그건 핀트에 서 좀 어긋난소리로 보인다.더 중요한 문제는 키보드 문자와 자신이 한자한자 꼭꼭 눌러쓴 친필은 그 실린 무게는 현격히 다르다는점에 있다.타이핑이아 분당 800타 1000타도 가능하다지만,친필이 분당 1000타가 가능한가? 아니 1000타가 문제가 아니라 100타는 가능한가? 속도와 무게는 반비례한다.속도가 빠르면 무게가 없고,인터넷으로 전자화된 문자는 신속한 의미전달이라는 측면에선 강점을 보이니 그 신속함 만큼 무게를 잃어버린지 오래다.조중동개새끼 조중동개새끼 백날욕하며 씨부러대도요즘의 그 가법기 가벼운 인터넷 매체보다 종이매체시절을 겪어온 조중동이 그나마 무게 있게 느껴지는건 전자화된 가벼운 문자시절 이전부터 묵직한 인쇄활자로 오랫동안 존재했던게 조중동이 무게감이 더 있을수밖에 없는건 당연한 현상이라는것이다.이렇게 키보드 문자와 인쇄된 문자의 무게가 다르고,또 인쇄된 문자와 직접 써지른 친필의 문자에 실린 무게가 다른데,가장 엄숙하고,장엄해야할 자살을 하기 직전 유서를 백수새끼 아침에 일어나서 발가락으로 컴퓨터 키듯 쟁쟁게 컴퓨터 쳐서 5분만에 경박하기 짝이 없는 '타다다닥' 키보드치는 음을 요란스레 들려대며 유서를 작성하고 죽으러 간다고? 본 필자는 기본적으로 이 이상의 자료를 봐야 타살임을 안다는것 자체가 뇌에 문제 있는 새끼라고 본다.이게 타살이나 자살이나를 판가름하는데는 사실 더이상 볼것도 없고 자살을 결심한자가 자고 일어나서 기상과 즉시 키보드로 유서를 후다닥 5분만에 써재끼고, 죽으러 갔다는 병신같은 자살시나리오가 검찰에 의해 발표되었을때 이전 이미 타살이란소리고,병신이나 속을 허술한 시나리오였다것이다.타살설을 입증하고자 더이상 자료를 파헤쳐보는것은 존나 무용한 짓이나 이것만으론 판단이 안되는 돌대가리 병신들을 위해 기왕 준비한 자료들은계속 풀어보긴 하겠다.

2.유서

아마 노무현 유서가 한국에서 만큼은 유서중 가장 유명한 유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널리 퍼지게 된게 노무현의 유서.개인적으로 이 유서를 평가하길 적당히 관조적 시각으로 구성되면서도 짧은 분량으로 함축되어 있어 심심할때 읽어보기에도 딱 좋은 글이라는게 본 필자의 평가.유명하지만 다시 상기하자는 차원에서 올려보면 다음과 같다.



시인지 유서인지 아침에 일어나마자 5분만에 작성한 유서치곤 꽤 시적 요소가 강한데,공교롭게도 이런 날조가 의심되는 유서들은보통 국민과 대중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는것이다.무슨 유서 내용이라는데 아들과 부인에겐 단 한마디도 안하냐? 주위는 자식에 얻어맞는 남편인가?대구 중학생 유서만 해도 아래와 같은데,노무현은 혹시 집에서 왕따당하셨나?



유서는 자신이 최후에 남기는 말이다.그렇다면 당연 자기자신과 가장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이들에게 남길말이 있어야 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자기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들에게마지막 말을 남기는게 통상적 예라 할수 있다. 그런데 노무현은 신기하게 아들과 아내에겐 단 한마디도 안하고 시인지 유서인지 구분도 안가는국민여러분께 남기는 유서를 5분만에 작성해서 컴퓨터에 남기고 절벽에서 점프했다고 한다.웃기는 일 아닌가.

본 필자는 물론 이 유서 조작이라고 본다.그리고 조작된 유서는 사실 디테일 부분에서 딸릴수밖에 없다.내가 마지막으로 유서 남기면 그동안 못했던말,꼭 하고 싶었던말들을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들 한데 해야 정상인데,유서를 대신 꾸며주는 새끼가 이런 세심한 내막을 알리는 없다.아내와 노무현 사이의 일,아들과 노무현 사이의 일을유서 대신 꾸며줄 놈이 해놓고 비석남겨달라고 하는건 무슨경우인지알아처먹기가 어렵다.아닌게 아니라 화장해달라는 말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미련없이 가겠다는 말의 다른 말이라고 봐도 된다.화장해달라는 문장 끝나자마자 비석남겨달라? 일관성이 불과 1초만에 사정없이 박살난다.이점으로 미루어 볼때 화장의 근거를마련하고자 유서갈지도 않은 유서에 '화장해라'를 덧붙이고 백사리사서 바로 뒤에 '비석남겨도'가 붙은걸로 봐야지,정상적 흐름의 문장이라 보긴 어렵다.

거기다 더 문제인건,화장에 대한 언급이다.석연찮은 자살에 늘 따라붙는건 언제나 '화장'인데,저 유서라는것은 '화장해라'라는 말 바로 뒤에'비석남겨도'라는 말로 본래 말을 뒤집는 수준의 반전을 보여주는데,작은 비석남겨 달라 할거면 뭐하러 화장해달라고 하나? 시신이 있어야 무덤이 있고 그러다음 작은 비석이던 뭐던 있을수가 있는것이지,화장해라는 말을 해놓고 비석남겨달라고 하는건 무슨경우인지알아처먹기가 어렵다.아닌게 아니라 화장해달라는 말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미련없이 가겠다는 말의 다른 말이라고 봐도 된다.화장해달라는 문장 끝나자마자 비석남겨달라? 일관성이 불과 1초만에 사정없이 박살난다.이점으로 미루어 볼때 화장의 근거를마련하고자 유서갈지도 않은 유서에 '화장해라'를 덧붙이고 백사리사서 바로 뒤에 '비석남겨도'가 붙은걸로 봐야지,정상적 흐름의 문장이라 보긴 어렵다.

이정도만으로도 이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 검찰에 따르면 이 유서는 2차체에 걸쳐 저장되었다고 한다.아니 컴퓨터에 띄워놓으려면 그냥 띄워놓지컴퓨터 중간에 전원나가서 유서 못찾을까봐 걱정되서 그 긴박한 5분의 유서 쓸 시간에 저장

까지 하셨나? 유서에 관한 날소일은 죽이기위한 복석하의 날소가 아니라 개그를 복석으로 날소일한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정도.더구나 더 골짜는건 저장을 한번만 한것이 아니라 1차저장과 2차저장을 따로 했다고 한다.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것이

첫째.유서를 컴퓨터로 쳤다는것도 골짜지만 그걸 또 저장했다는것도 웃긴일이다.컴퓨터에 띄워놓고 전달 하는것이 목적이면 구태여 저장까지 할필요 없다.지워질까봐 배려한것이라면 차라리 자기전에 친필로 쓰지 5분동안 유서써서 저장까지 하는 배려정신이 참으로 놀랍다.유서써서 컴퓨터에서 저장하기 버튼을 찾아 저장하고 컴퓨터에 띄워놓는다? 그냥 웃기려고 자살조작하고 타살했다고 이실직고 하는 편이 차라리 이해된다.

둘째.2차에 걸쳐 저장했다 하더라도 그걸 경찰이 아는것도 웃긴거다.아니 문서 저장횟수는 말그대로 그냥 컴퓨터 화일 오픈클릭하여 생성된 날짜로알수 있는것이지 1차저장날짜까지 알려면 최종 저장날짜만 아는것에 비해 비교도 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절차를 요한다.내가 텍스트 화일을 2012년 6월10일 오후10시에 작성 완료해서 보관하고 있으면그냥 그걸로 끝이지 이전에 1차저장을 언제 했는지를 아는건 정밀 분석을 통해 알아낼수 있는 존나게 까다로운 절차라는것이다.그런데 유서의 1차저장 날짜를 바로 알아버리는건 그냥 지들의 수사발표에 좇구린거무마하려고 내뻘은 저장날짜라서 저런걸 조사해서 알고 있는것으로 볼수 있는것에서 웃긴거 아닌가? 물론 이같은점은 진짜로 1차저장날짜를 알고 있을때 보이는 문제점이지,저 발표한 날짜가 사실도 아니라고 본다.즉 노무현을 피해자로 간주하여 조사하려는게 아니라 저새끼들은이미 1차저장날짜 어찌구를 씨부리는 순간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대려는 차원에서 조사를 사칭하고 있다는것의 증명일수 밖에 없었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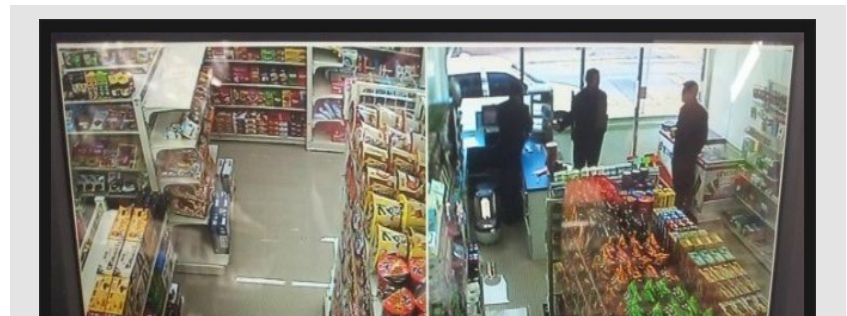
이점들을 살펴보면 유서에서 보여지는 문제가 사실 한두가지를 넘는 수준이다.하기사 자고 일어나서 인나자마자 5분만에 작성했다는 유서다보니상황자체가 벌써 개그라 유서내부의 개그성에 대해서는 그닥 조명되지도 않은것 같다.어쨌든 이 컴퓨터 유서에 의해 노무현은 부검도 없이 화장되고,시신도 없는데 묘지에는 물론 과상한 사건의 주범이 되고 말아버렸다.

3.CCTV의 쟁점과 원본 부재의 문제

노무현이 자살했다는것과 무슨 연관인진 모르겠으나,일단 경찰측은 CCTV를 대대적으로 보여주어 자살의 근거로 삼게 되는데,사실 이것도따지고 보면 좀 웃긴것이다.막말로 산에서 떨어져 자살한것이면 산에서 스스로 떨어지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지 않은한 자살의 근거는 될수 없다.고로 집밖에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자살이라는 논리는 성립못하는데,CCTV가 가짜라면 타살이라는건 확실히 성립한다는 점에서 사실 공개해봤자 위험만 크고 실익은 없는 자료가 CCTV인데도 저래 공개한 이우자체를 모르겠다.어쨌든 그때 상황을 제대로 본게 없고 뒤늦게 조사를 한거라 잘은 모르겠지만 타살의혹도 있어서 CCTV를 공개한건지는 몰라도 일단 CCTV가 원본이 아니라는것에서 문제가 존나 크다.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경찰에 의해 공개된 CCTV영상부터 먼저 보자.



2분가량의 동영상인데도 문제점이 존나 많다.일단 직관적으로 눈에 띄는게 아니 씨부릴 뎡 대통령 자택 CCTV에 저긴 날짜도 안박혀 있나?편의점 CCTV에도 날짜 박혀있는건 존나게 상식이다.





<편의점 CCTV에도 날짜는 기본인건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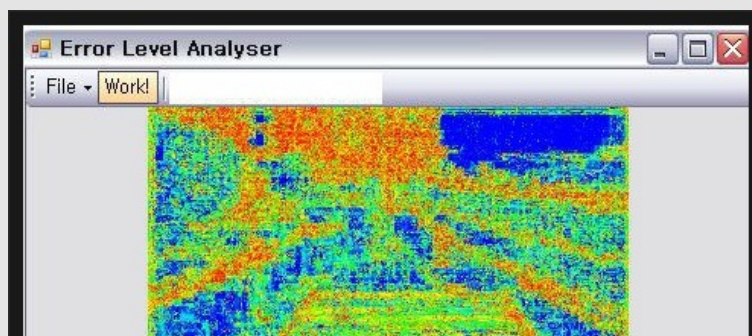
말이야 바른말이지 CCTV에 날짜안박혀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날짜 없는 CCTV는 그게 언제 찍 장면인줄 알고 날짜도 안박혀 있나? 저건 분명고의로 지운흔적으로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아닌게 아니라 CCTV 오른쪽 구석에는 아래와 같은 이상한 모습이 잡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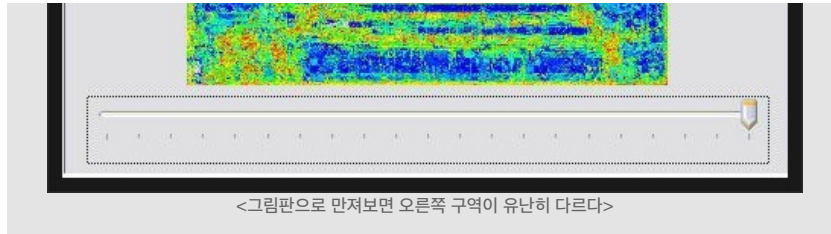


<오른쪽 빨간네모의 수상한 구역>



<어둡게 하면 좀더 수상한 지역이 확실히 보인다고 한다>





위의 자료들은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쇼맨십 수준의 자료고, 사실 CCTV화면 날짜가 원래 있던게 지워졌다는 사실은 공식적 답변에 의해 확인된 부분인지라 크게 논란 삼을 내용 자체가 아니고 그냥 팩트로 여기면 된다. CCTV원본신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경찰청 경성남도지방경찰청 수사과		
• 담당자	강법수	• 연락처	055-263-3726
• 접수일	2009.06.10 09:29:59	• 민원인 신청번호	1AA-0906-018634
• 처리(예정)일	2009.06.11 15:39:46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906-025860

※ 최종 접수,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처리결과(답변내용)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c-tv 열상날짜가 빠진 것은
 cc-tv 전체 내용 가운데 유혹측과 혐의된 부분만을 편집하여 공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림 파일 특성상 발생한 내용이며, 이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에서 기자들에게 원본을 보여준 사실이 있고, 유혹 및 기자 모두 원본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cc-tv 화면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이 부족하셨다면 경찰청 강력계(055-284-365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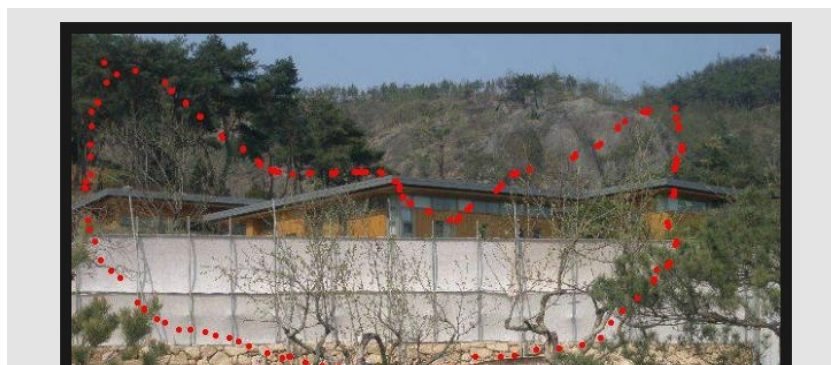
<이소리는 결국 원본 CCTV에는 날짜가 있었는데 편집하다 지워졌단 소리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커진다. 애초에 저 CCTV는 적극적 자료가 아니라 소극적 자료다. 그게 원소리냐면 저 CCTV가 노무현의 자살을 입증하는 확실한 그런 자료의 성격이 아니라 '조작되지 않은 CCTV의 존재'를 보임으로 적어도 타살이 아님을 보이는 것외엔 존재의 목적이 없는 자료라는 것이다. CCTV로 문밖에 나가는 모습이 있다고 자살인건 아니지만 CCTV가 조작이면 이걸 볼것도 없이 타살이다. CCTV라는것이 멀쩡히 진본으로 실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면야 그 시간에 적어도 아무일도 없었다는것인데, 그게 진본이 아닌 위조본으로 진본행세를 한다는건 그시간에 이미 일이 터져있는 후에 감추려고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니깐 자연스레 도말할수 있는 결론이다. CCTV자료의 이런 성격을 이해한다면 조작되지 않았음을 보이는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입증하려 해야 정상일터인데 보다시피별 되도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날짜까지 편집된것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타살 확정수준이라고 보면 무리 없다. 그렇다고 문제가 여기서만 그니까?

4. CCTV의 날짜는 과연 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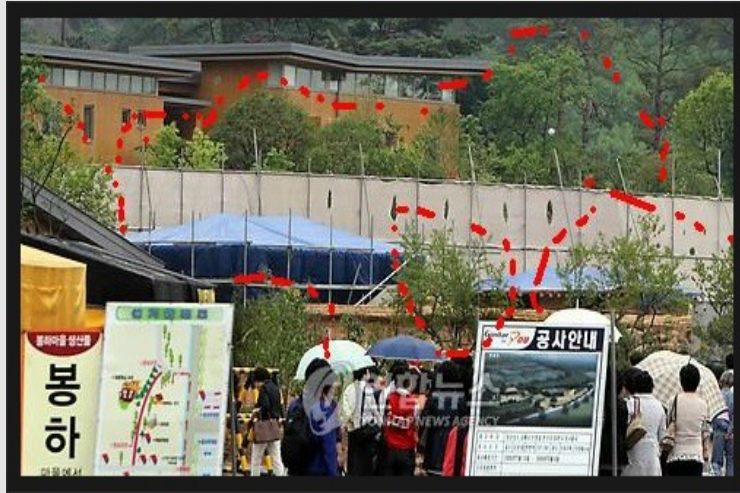
최대환 원본을 공개하여 CCTV의 투명함으로 입증해야할 문제를 그렇지 못하다는것에서 이미 타살확정 수준이지만, 더 문제는 저 CCTV안에서도헛점이 존나게 많다는것이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저 CCTV가 확실히 당일날 찍은게 맞냐는 의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못준다는 점이다. CCTV에 찍힌 노무현의 모습은 과연 노무현 사망날짜인 2009년 5월23일의 모습일까? 다른 날의 모습일까?

이런 의문에 대해 일단 가장 큰 의혹을 심어주는대상은 바로 나무의 모습이다. 알다시피 4월에서 5월달은 나무와 초목이 속속 자라나는 시기라시기에 따라 나무와 풀의 성장도가 현격이 다르다. 비교사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4월중순경의 나무모습.물론 노무현 자택 옆의 모습이다>



<5월중순경의 나무모습.물론 노무현 자택 옆의 모습이다>

빨간 점선으로 표시한 구역을 보면 알겠지만,4월에는 새싹이 돋으려고 하는 시기고,5월에는 완전히 푸른 나무모습을 갖 추게 된다.그런데 괴상하게도 저 CCTV는 노무현의 사망일 당일의 CCTV라 하는데,나무 성장도가 5월의 모습과 현격 히 다른것 같다.아래모습에서 비교를 해보시라.



<빨간화살표와 네모가 가로등,파란화살표는 초소이고 나무가 아직 많이 비어있다>



같은날 같은장소 장면이라는데 나무 성장도가 확연히 다른모습으로 보인다.전자의 CCTV에서는 가로등이 가려지지 않을 수준이나나무가 허한데,아래쪽엔 빨간네모로 표기한 가로등이 잘 보이지 않을정도로 많이 무성해 있다.각도 탓으로 보기에 차이가 명료해보인다.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 헤맸지만 사실 그날 봉하마을 취재했던 동영상은 상당수 삭제되어 도무지 원본과 더 많은 자료를 찾을래야 찾을수가 없는 수준이라는것.그날 당시 올라왔던 동영상 주소는 아래와 같는데,클릭해보면 기사가 없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동영상 원본주소-http://tv.hani.co.kr/index.php?movie_idx=332

동영상은 없고 나무상태를 보여줄 다른 사진들을 구하자니 존나게 빈약하고,뭐 어쩔수 없이 아래쪽에 다른각도를 찍은 사진으로나무의 성장도를 가능해보시라.어느 위치인지 감잡기 용이하라는 의도하에 차가 나오는 쓸때없는 부분까지 이어 붙였다.빨간 네모로 따로 표기한 부분의 나무는 흡사 정글수준의 성장도를 보이는데 CCTV에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는것이 문제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점만 보이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 더 문제다. 노무현은 분명 죽을 당시 점퍼 차림으로 죽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CCTV에 찍힌 모습은 정장의 모습인가?

뉴스 정확도 | 최신순 | 언론사선

봉하마을도 큰 충격! YTN TV | 2009.05.23 (토) 오후 12:07
 [앵커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사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취재기자.. 현장을 둘러본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신발 한짝과 **피 묻은 점퍼**가 놓여있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음현속입니다.
 네이버에서 보기 | 관련기사 보기 | 이 언론사 내 검색

봉하마을도 큰 충격! YTN | 2009.05.23 (토) 오전 11:53
 [앵커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사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취재기자..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신발 한짝과 **피 묻은 점퍼**가 놓여있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음현속입니다. [관련기사] 당
 네이버에서 보기 | 관련기사 보기 | 이 언론사 내 검색

봉하마을도 큰 충격! YTN TV | 2009.05.23 (토) 오후 3:44
 [앵커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사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취재기자.. 현장을 둘러본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신발 한짝과 **피 묻은 점퍼**가 놓여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안에 검찰의...
 네이버에서 보기 | 관련기사 보기 | 이 언론사 내 검색

봉하마을도 큰 충격! YTN | 2009.05.23 (토) 오후 3:15
 [앵커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사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취재기자.. 현장을 둘러본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신발 한짝과 **피 묻은 점퍼**가 놓여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안에 검찰의...
 네이버에서 보기 | 관련기사 보기 | 이 언론사 내 검색

봉하마을도 큰 충격! YTN TV | 2009.05.23 (토) 오후 2:28
 [앵커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사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취재기자.. 현장을 둘러본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신발 한짝과 **피 묻은 점퍼**가 놓여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안에 검찰의...
 네이버에서 보기 | 관련기사 보기 | 이 언론사 내 검색

<기사상으로 피물은 점퍼>



<피물은 점퍼라며 왜 CCTV에서는 정장이지?>

또한 CCTV에서 보여지는 차단막이 5월23일 상황과 다르다는것도 문제다. CCTV에서의 오른쪽 차단막이는 분명 아래와 같이구멍뚫리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차후 노무현이 가던방향으로 건게 되자 그때서야 오른쪽 차단막에 구멍이 뚫린 모습이 포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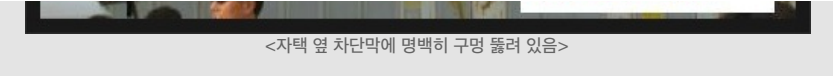
<이장면의 CCTV화면 에서는 차단막에 분명 구멍이 없다>



<여기까지 걸어나와야지만 차단막의 구멍이 발견되기 시작>

그런데 5월12일과 5월 24일 사진에 따르면 노무현 자택 부근의 차단막에 이미 구멍이 나있어야 하는것이 옳다.





<자택 옆 차단막에 명백히 구멍 뚫려 있음>

차단막의 상태가 다르다는 건 그 CCTV영상이 5월24일 영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차단막의 구멍은 아래의 그림설명처럼 점차 구멍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CCTV화면상에서는 대문에서 나오자마자 차단막이 구멍이 없었다는 점은 노무현의 CCTV는 5월이 되기 전 영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여 차단막의 구멍에 대한 설명그림은 덧붙이면 아래와 같다.



이상을 살펴보면 증거합치고 당일 CCTV라고 올린 CCTV는 당일 CCTV일 가능성이 극히 떨어지며, 사실 이걸 가능성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미 애러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5. 전날 이미 징조를 보인 신문기사들

사실 이점은 타살의혹과는 무관한 자료고, 굳이 자료 성격을 따지자면 타살소에 어느선까지 개입했나? 라는 것대로나 타당할 자료일 것이다. 노무현은 자살소식 뜨기 이전에 이미 상당수 언론들이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흔적이 엿보였었다. 일단 아래는 울산 제일일보의 작성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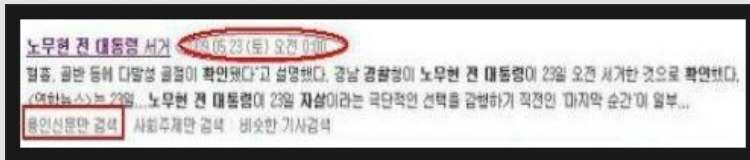


<21일에 이미 작성된 기사가 23일에 발행>



<울산제일일보는 차후 삭제처리.그래서 더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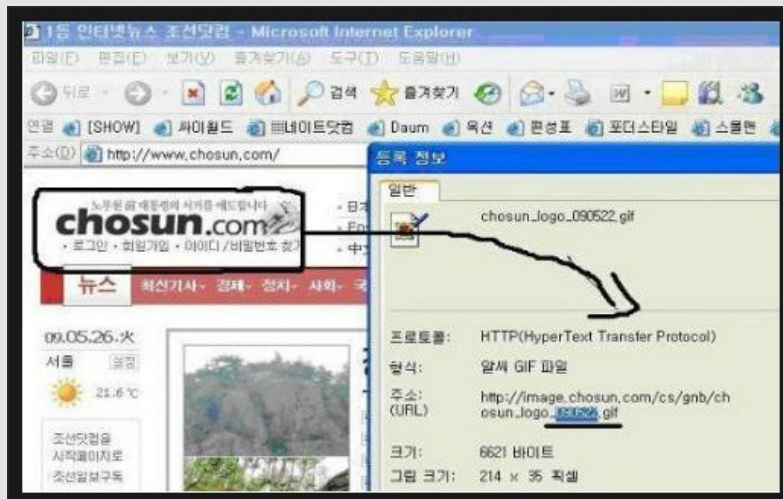
그렇다면 울산 제일일보만 그리했나? 라면 그게 아니라게 문제다.파노라마처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용인신문도 5월23일 새벽 12시에 이미 작성해 놓았던 상태>



<야후미디어는 5월22일 오후 두시에 작성완료>



<조선일보는 국화를 22일에 만들어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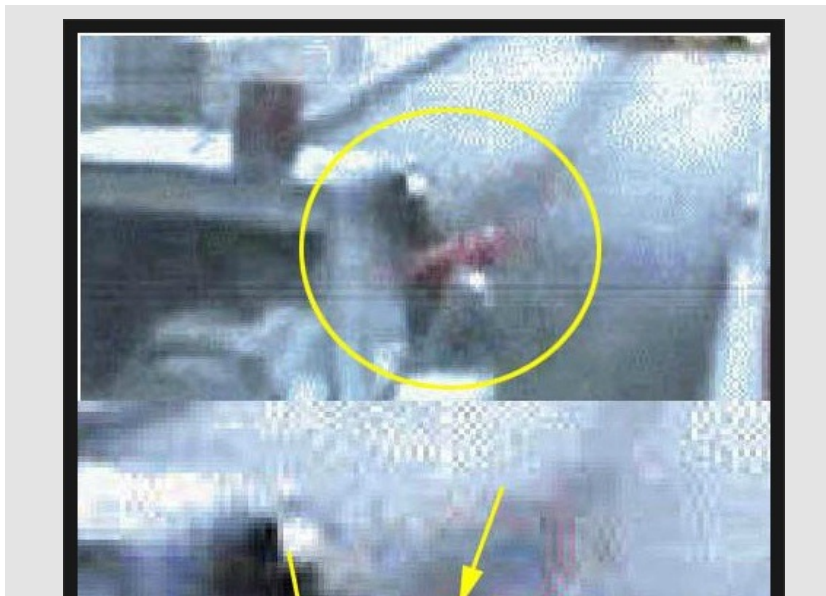
<사망시간 발표시간에 문제있었던 기사들을 모아보면 이처럼 널부러진 수준>

조선일보의 경우 국회사전정도야 화일작성자의 타이핑 실수라고 우겨도 된다. 기사 작성시간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기입해주는것이 수동으로 기입하는것이 아니라는것에서 국회사전화일명은 다른것보단 확실히 근거가 빈약하다. 그런데 이것도 여의치 않은것이 다른 등보잡 신문도 미리 알았다면 조선일보가 모를리 없다고 보는게 합당한지라 사실 저 자료들이 '전부'날조가 아닌한 국회사전의 파일명에 대한 독자적 발췌는 그닥 의미가 없다. 이쯤되면 일부러 걸리려고 저런것인지 의문도 들 정도. 다만 이 자료들은 타살 확인 자료라기보단, 개입자 범위를 알려주는 자료로의 성격이 짙다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근데 도대체 공범이 몇마리나?

6. 톨게이트의 붉은팔

사실 어떤 증명력이라던가, 가치는 가장 떨어지는 자료. 다만 이 자료가 알려지긴 가장 널리 알려져서 다소간의 브리핑 차원에서 언급할 필요성은 느껴질미에 덧붙인다.

아마 상당수는 조금 봤을 자료같기도 한데 노무현이 탄 차가 톨게이트를 지나며 아래와 같은 모습이 찍혔다고 하고, 위에는 실제 사진인데 아래는경찰봉 사진으로 합성되서 은폐되었다고 널리 전파된 사진들이다.





<노무현의 피묻은 팔로 알려진 사진>



<피묻은 팔을 가리려고 경찰봉으로 합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웬지 낚시성 자료같은데,본 필자가 보기엔 애초 피묻은 팔 자체가 피묻은 팔이 아니라 그것 자체도 합성으로 생각된다. 항간에 알려지길 뒷사진 빨간부분이 굵게 나온 사진은 진본이고, 아래쪽 경찰봉의 사진은 합성이라며 피묻은 팔을 가리고자 경찰봉이 합성되었다는 내용을 골짜로 전파되었는데, 그냥 애초부터 위 아래 모두 합성아니냐는 것이다.저렇게 가장 명백히 드러나는 경찰봉 합성을 보여주고 합성티가 덜나는듯한 뒷 사진을 진본이라고 보여주면 그것이 피묻은 팔이라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믿고,안믿는 사람은 안믿으며,객관적으로 볼줄 아는 사람들은피묻은 팔이라 알려진 사진을 보고 저걸 팔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다만 저런 티 덜나는 합성과,티 좀나 나는 합성으로 티 덜나는 합성을 진본처럼 유포시켜 놓으면,차후 제3의 '진짜진본'이 등장해도저 가짜들에 의해 문힐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기에 저런 낚시질을 하는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단호히 이야기하는데 피묻은 팔이라고 알려진것도 합성이고 경찰봉합성은 말할것도 없이 합성이다.저기에 어떤 제3의 치명적 진본이있어서 저런건지는 몰라도,저 자료를 자체는 낚시성이 강하다.물론 분노에 정신없는 노빠들은 저 사진을 피묻은 팔이라고 주장하여괜히 노빠들의 다른 타살설 주장까지 '인지부조화환자'들의 주장으로 매도되게하여 낙인 찍히게 하고 있으니,그 효과를 위해 자 낚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상을 살펴보면 검찰 수사결과 발표자료부터 무슨 엽기 개그영화수준이요,유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인간 내면에 대한 통찰이1g도 안되어있는 방식같은 조작질이요,CCTV문제점은 팔만대장경을 찍을 기세고,신문기사 작성시간이나 각종 낚시성 자료들로 인해 노무현 타살설은사실 부정하기가 힘든 수준인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보통은 좌빨들은 노무현이 타살되었다고 생각하고,수꼴들은 노무현이 자살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그런데 이에 위배되는 유명인사가하나 있는데 그자가 바로 지만원이다.물론 지만원은 민주당쪽에 의해 타살되었다고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은 두말할필요 없고.

그런데 필자도 개나라당이 사주해서 일어난 일은 아닌것으로 생각되고 굳이 따지면 지만원과 견해는 유사하다.지금의 상황은 마치 간첩이 잡힌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것이다.국군에 의해 간첩이 잡혔는데 간첩의 목에 독침이 꽂혀 죽었다면,이는 과연 국군이 죽였을것인가? 아니면 다른 간첩B가 죽였을것인가? 고민하는척 했지만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이당연히 잡힌 간첩의 입을 막기위해 간첩B가 독침을 쏘 죽였다는것은 명백하고,이같은 사실은 영화를 별로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출할수 있는 결론일것이다.

노무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노무현을 살해하려는 동기가 강한 쪽은 노무현의 비리를 캐낼 개나라당 쪽이 아니라 비리를 덮어야 할 진보측 입장이다. 그렇다면 노무현이 타살이라면 개나라당 사주에 의한 결과였을까 아니면, 진보측 사주에 의한 결과였을까? 이것 역시 고민하는 척 했지만 사실 고민할 필요 없는 문제로 보인다. 다만 개나라당측도 딱히 보호해줄 명분까지 미약해서 그냥 좌빨과 수꼴이 쿵짝이 맞아 타살로 몰아간 것으로 보이고, 주도자는 개나라당 쪽 보단 아무래도 진보 쪽이 정당한 상황이 맞는 것 같다.

물론 이렇다해도 범인이 누구냐는 사실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고, 누가 범인이나는 차후에 밝혀질 문제지 지금 단계에서 범인이 누군지까지 지목하고 확신할 단계는 분명 아닌 것 같다. 허나 분명한 것은 노무현의 자살의 가능성은 0.1%도 없고, 범인이 누가 되었든 존나 허술한 시나리오와 생쇼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만큼은 지구가 도는 것 만큼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범인이 좌빨이 되었던 수꼴이 되었든 반드시 잡아야만 한다고 본다. 노무현이 좋던 싫던 간에도 말이다. 이 글이 범인을 잡는데 새발의 미토콘드리아만큼의 도움이라도 되길 바랄 뿐이다. 이상이다.



덧글 54 | 워인글 | 공감 43 공감하기

| 인쇄

덧글쓰기



지킴이 2012/06/11 03:03

답글

노무현 타살설은 여기에 언급된 것 말고도 정황 증거며 다른 사실들이 더있죠 아무튼 이수라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진돌 2012/06/11 03:03

답글

매트릭스에서 깨어난 네오가 이런 기분일지....
요즈음 세계관이 붕괴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신신애씨의 '세상은 요지경' 이란 노래가 생각나는군요....
주인장님 글을 읽다보면 일단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좋습니다
냉철한 매의 눈 오래도록 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 블로그가 건강하게 유지되길 바랍니다



바람의나라 2012/06/11 06:34

답글

자고로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로 인해 제일 이득이 보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당(당시) 모두 엄청 크게 이득볼 일은 없었죠. 잘못하면 당해체까지 갈 정도로 역풍맞기 십상... 당시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봉화마을에 수십명의 취재기자들이 죽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건 전야밤에 전부 철수명령이 위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날 밤을 기해서 다 철수 했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에 사건이 터져서 특종잡은 기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거 보면 사건의 배후에는 제3의 누군지는 모르지만 검찰, 경찰, 언론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이수라 2012/06/11 09:23

답글

그같은 접근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결릴 경우를 대비한다면 지구상에 범죄는 안 일어나지요. 살인 저질러서 멸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일어납니다. 그렇다는 건 범죄라는 건 '결릴 경우'를 고려하고 감안해서 발생된다고 보던, 안결릴 경우 얼마만큼의 이득이나가 주 기준을 형성하여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걸리면 개피보지만, 안결릴 자신이 있고, 안결릴 경우 이득이 큰 사람일수록 용의선상에 두는 것이 맞지요.

사실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저런 것 할 줄 같은 새끼 한새끼밖에 없습니다.

비밀 답글입니다. 2012/06/26 20:17



irungo 2012/06/11 07:55

답글

지금까지 본 타살설은 근거가 부족하고 엉성해 보였는데 이수라님 글은 정말 논리적이네요. 잘 봤

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는지는 정말 감이 없네요.

비밀 댓글입니다. 2012/06/11 08:34



아수라 2012/06/11 11:06

답글

이거는 존나 근거 없이 덧붙이는 그냥 감에 의한 생각인데 느낌상 노무현 위장자살소 이전에 예비 시뮬레이션으로 최진실이 택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보면 가장 큰 유사점이 있는데, 둘다 유서가 없고, 대신 최진실은 문자메세지 유서, 노무현은 컴퓨터 유서 이런 유사대용품만 발견된다는 점에서 유사성도 있죠. 국민적 스타인 최진실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떠보고 가능하다 싶으니 그 다음타겟인 진짜 타겟으로 들어간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2012/06/11 11:24

답글

저도 또래내에서는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 꽤나 비판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인공님 글들을 볼때마다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깨닫게됩니다

오원춘 인육사건으로 주인공님 블로그알게된후 최근 2년정도의 글은 다 읽어본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이보다 더 몇년전에도(주인장님이 지금보다 훨씬 어리셨을 때부터) 이런 시각을 유지했다는 점이에요. 보통 어렸을 때야 세상이 워낙 자같이 보이니 뭐라뭐라 하지만, 나중되면 '그래 세상사는 게 다 그렇지'하면서 세상 일들에 무관심해지잖아요

주변에 꼭 읽어보라고 권유했더니 글이 길다고 잠깐보다 말더군요. 그러면서 또 중복이 어땠고 뇌물현이 어땠고 불쌍한 타블로라면서 잘아는듯이 말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주인장님 글보고 백청강 앨범발매 관련 기사를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이제야 조선족 씹버리지들의 댓글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나는 서울특별시의 한 시민으로써 백청강을 응원한다' 등등ㅋㅋㅋㅋ 서울특별시는 뭐고 ~으로서 맞춤형 알리도었고. 거기다 조선족 비판만하면 받는 다량의 비추천을 봤을 때, 조선족문제가 꽤나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댓글이 길어지는데 여튼 앞으로 주인공님 글 잘읽고 부디 혹시 모르는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브라이언 2012/06/11 12:57

답글

요즘 네이버 블로그 접었는데 이 블로그 때문에 로긴하고 온다. 근데 무슨 글을 이렇게 많이 써. 난 한 쪽 쓰는 것도 며칠 걸리는데 ㅎㅎ

근데 이거 널리 알려져도 되는거야?



아수라 2012/06/11 12:59

답글

물론 널리 알려도 됨. 후후

애초에 그러라고 쓰는 글들이고.



cornjs36 2012/06/11 14:35

답글

진실을 밝히느라 고생좀 하셨겠네요 생각없는 국민들이 워낙 많아서... 정몽헌을 죽인자와 동일 범일 확률이98%



pks124 2012/06/14 16:12

답글

참 무서운놈이군요 그 인간은 과연누구일까요?

비밀 댓글입니다. 2012/06/11 17:38

비밀 답글입니다. 2012/06/11 18:43



Kia Kaha 2012/06/11 22:02

답글

1. 유서랑 유언은 구분해야 하는데, 해당 '유서'의 내용 안에는 향후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화장 부분을 빼면), 내 죽음을 이런식으로 받아들여달라는 가이 드라인과 자신의 생전 행동에 대한 해명성 글귀가 주를 이루고 있음. 따라서 이것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 후 특정한 법적 효과들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 유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소회를 적은 유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함.

2. 유언은 법률상 요식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노무현의 유일한 유언이고 적혀있는 내용의 전부라면 당연히 효력이 없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무현 정도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생생할 때부터 공증증서 또는 비밀증서에 의한 효력있는 유언을 작성해 놓고,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추어 가끔씩 유언을 수정하는 것이 보통임. 따라서 저것은 단순한 유서에 불과하고, 진

짜 유언장은 따로 있을 가능성도 많음. 그리고 이런 '진짜' 유언장은 그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그 내용 안에 공개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대중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

3. 주어진 정보 하에서 굳이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진짜 유언장이 있는 경우' -> 왜 화장을 진짜 유언장에서 규정하지 않았는가(혹은 이중으로 유서에서 또 언급했는가), '진짜 유언장이 없는 경우' -> 왜 그동안 유언장 하나 안쓰고 뒀었느냐 정도인데, 너무 제한적인 정보 밖에 없기 때문에 무의미함.

4. 유서의 1,2문단은 국민을 청자로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3문단은 국민 대상의 내용이라 볼 수 없음(가족에게 하는 이야기임). 그리고 2문단의 경우에도 대국민 항변이라기 보다는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함.

5. 화장 + 비석 조합이 얼마나 흔한 것인지는 다음 링크를 참조할 것.

https://www.google.co.kr/search?q=cremation+tombstones&tbm=isch&sa=X&oi=mode_link&ct=mode

6. 노무현이 원도 컴퓨터를 쓴다고 가정할 때, 1차 저장시점과 최종 저장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클릭 1회와 좌클릭 1회가 필요함. 정확히 말하면 파일을 우클릭하고 속성을 좌클릭하면 파일의 생성일시와 최종수정 날짜가 뜬. 즉, 정밀분석 따위는 필요 없음.

7. 이 글 안에서만 이런 식으로 150까지는 무난하게 쓸 수 있으나, 시간이 아까워서 생략함.

아수라 2012/06/11 22:14 답글
이런식으로 물타기한다는걸 표본으로 보이고자 뽀 리플은 남겨두지 후후

니 뽀리플은 법률적 효력있는 유언장의 존부를 기준으로 열심히 써부린 개똥글인데 고로

1번-내글이랑 1g도 관련없음

2번-내글이랑 1g도 관련없음

3번-내글이랑 1g도 관련없음.

4번-내글과 관련있는 항목 드디어 발견. 그런데 본 글의 취지는 가족에게 행하는 말에 '디테일'이 심하게 떨어진다라는 것도 추가하고 있으므로 개소리에 불과

5번-흔하나 안하냐를 떠나서 '화장해라'라는 말 다음 '비석세워줘'가 통일성 해친다는 관점이지 통일성을 해친다는 관점을 '흔하다'로 물타기하려는 전형적인 하등 수법.

6번-문서 작성시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건 검찰이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라 니가 뽀소리할 필요없음

니가 어디서 왔을까? 1번,2번,3번항 보니깐 니가 법률종 안답시고 괜히 논점을 그쪽으로 몰아가서 관련도 없는 이글을 니가 자신있어하는 논점에 부딪치게 하려고 애쓰흔적이 역력한데 이 탄식이면 니가 누군지 너무 뻔해지잖나? 후후

상부에서 잡으라는 범인안잡고 인터넷에서 이것하레냐?

아수라 2012/06/11 22:48 답글
이거 완전 개그맨이네. 화장+비석의 사례가 흔한것을 보이고자 외국사례를 검색해왔다는건 한국에선 별로 없다는 소리야녀 색기야. 후후

법종사 공무원정도는 되는줄알았는데 수법이 영 찌질한거 보니 그냥 알량한 법지식있는 알바 팀원중 하나인듯.

그뿐만이 아니라

-검찰수사발표자료일부내용-

동 유서는 박 비서관이 김 비서관에게 전달,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유족측 정 변호사를 통해 당일 13:00경 경찰에서 입수하였으며 유족측의 동의하에 [면밀한 디지털증거 분석한 결과 작성 시간 및 저장시간 등을 확인함]

괄호내용확인할것. 분명 면밀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로 저장시간을 얻은 결과로 알려줘. 좌클릭? 우클릭?

좃도 모르고 씨부리는 몰타기 사절.



후훗 2012/06/15 03:07

답글

나랑 똑같은 식견을 가지고 있네용... 나도 진보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느꼈는데..어당 야당 보면 서로 헐뜯으면서도 최소한의 그들만의 급소는 피하는듯한..



칼리엘라 2012/06/15 15:58

답글

아수라님 글보면 다 맞는것 같은데 가끔씩 좀.. 최신질도 암살일수있단건가요?? 조선족 개서른데 꼬꼬면, 소녀시대 애기는 좀.. 소시 좋아하는건 아니고 그중에 중국인일만한 애가 없어요...;; 중국 어 잘한다는애가 태연, 효연, 서현 이라던데 중국인같이 안생겼음;;;;; ㅋ 글고 혹시 익명으랴도 트위터 하실 생각은 없나여



아수라 2012/06/15 16:03

답글

국적세탁 호적세탁 주범이 어디갑습니까? 범무부입니다.검찰이 어디소속같아요? 얼마들도 범무부조.인육판매업자 통화내역도 검경에 의해 은폐됩니다.

범무부는 저쪽 쟁개쪽에 아주 장악되었다고 무리는 없고,여기서 필요한 국적세탁과 호적세탁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봐야지요.

탈법행위의 온상지 국제학교에서 요즘 아주 재미있는짓하더군요.중국출생을 미국출생으로 세탁시키고 연예인 데뷔시키기.후후.

장담해도 되는데 연예쪽 저거 다 조사하면 문제 심각할겁니다.



킬링머신 2012/06/18 15:27

답글

아수라 전 개인적으로 빅뱅 그애들 첨나왔을때 그리고 샤이니 그애들 전부 중국애들로 봤는데,내느낌이 맞다면 분명 중국 애들 일꺼임 ,, 후훗,,,, ㅎㅎ



엘리스 2012/06/29 08:35

답글

킬링머신 음..... 전부는 아니고 그들중 한두명? 그쪽틱한.. 음 전지현은 화교인거 유명하죠 본명은 왕지현. 아니라고 조낸 실드치는데 씨씨 모델할때부터(유명해지기 전부터) 화교라고 알려져 있었죠.잡지에 얼굴 좀 나올때부터..



명화량 2012/06/15 23:34

답글

타살이 맞다면 당시 한나라당이 한짓이겠쥬.산문들이 미리 알고있었고 보수쪽의 매체라면 당연 같은팀이이었겠어요?



basekbo 2012/06/16 01:06

답글

플메 일루 그들밖에 없지요



작은보석 2012/07/21 14:43

답글

공감합니다만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아는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이게 뭔지 짐작을 못 할 겁니다.



루베문 2012/06/16 03:02

답글

참 수수께끼네요;;;



ununpentium 2012/06/17 00:59

답글

아수라님 신변이격정되네요 부디몸조심 하십시오. 엄청난거물도이렇게만드는데..



킬링머신 2012/06/18 15:26

답글

올해들어 문득 이사건이 내머리를 떠나지않았는데,, 역시 같은 생각을하고 계신분이 그것도 이렇게 명백한 자료와 함께 글올려주시니 조금은 머리가맑아진것 같네요 하지만 이사건이 언제쯤 진실을 말해줄지,, 우리가 늙어죽을때까지라도 진실이 나왔음 좋겠네요,, 글쓰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tinorossi 2012/06/19 12:12

답글

노무현 장례식때 억지울음 샀하던 늙은이 면상이 떠오르는군요. 정몽헌의 죽음도 그렇고..분단국의 비극 인가요?

-  **서정호** 2012/06/20 11:34 답글
 여러 의문스러운 자살사건들을 다뤄주셨는데 정몽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네요.
 이 사건도 실제 자살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이수라** 2012/06/20 11:36 답글
 정몽헌 사건은 몰랐는데 나중에 꼬라지 다시 보니까 타살같습니다.
-
-  **위니훗** 2012/06/23 02:47 답글
 노짱 생각하며 검색질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소신껏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가 부럽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건승하시길
-
-  **호이호이** 2012/06/23 19:33 답글
 저는 진보가 아니고 이명박 짚이라고 생각합니다.
-
-  **이수라** 2012/06/23 19:36 답글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진보가 한짓이던 이명박이 한짓이던 타살인건 분명해 보이니 잡자로 의견모으는게 우선이라는 소리죠.
-
-  **tinorossi** 2012/06/24 15:09 답글
 이명박이는 그럴만한 배경도 없는 인간입니다.
-
-  **시골처녀** 2012/06/23 19:55 답글
 아놔, 이수라님 참... 아리안타임즈만 올라 기다렸는데... 글이 안올라와서 타블한테 고소당한 줄... ㅋㅋㅋ 오늘 여기 처음 알았네요. 읽을거리 많아서 오늘 황재...
-
-  **zucca18** 2012/06/25 18:37 답글
 사망시간 발표시간 관련 기사들을 보니 5월 23일 (토) 0:00 분으로 나오네요 엠바고가 걸려서 그런 거 같습시다
-
-  **홍칼** 2012/06/29 21:03 답글
 지팡이
-
-  **uglykids1212** 2012/10/01 19:24 답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 같이 있던 그 경호원이 참 의심스러운데.. 그 경호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그 경호원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밥이나먹자** 2012/11/13 22:26 답글
 전 이사건이 부산문현동보물사건과 관련이 없지않아있다고생각하는데... 이수라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ㄱ
-
-  **romantico** 2013/01/06 10:41 답글
 봉하마을 묘지 모양이 프리에이슨 심볼과 똑같다는 점이 참 걸리네요..
-
-  **두루돌돌** 2013/04/26 13:34 답글
 훌륭한 분석입니다. 퍼가도 되나요?
-
-  **서울하늘** 2013/04/30 14:14 답글
 멜랑코리형은 새벽 우울증이 더 심합니다..모두가 잠든 시간 저홀로 일어나 외로움이 극에 달하는.. 즉 일어나마 마자 충동적으로 유서쓰고 자살할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저도 타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요..
-
-  **데프** 2013/04/30 16:53 답글
 근데 이견 가능성의 존재여부나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입니다. 미심쩍은 부분,물증을 가리고 추상적인 부분,심증을 강조하면 그게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볼수 있게되니까요.

서울하늘 2013/04/30 17:17 답글
잠자고 일어나서 유서쓰고 자살하러 가는게 말이 되냐는 본문내용에 반문일 뿐입니다...새벽에
나갔다 안나갔다는 물증을 달순 있어도 새벽에 죽는게 말이 되냐는 주장은 합리적 추론이 아니
죠..말이되냐? 말은된다 입니다


전 그부분만 지적한겁니다.
본문 자체가 새벽 자살의 가능성의 존재 여부를 글쓴이의 상식선에서 다루는데요 그상식은 틀
리다란 말을 하고있을뿐입니다


아수라 2013/04/30 17:23 답글
서울하늘 보니깐 난독애자인데,잠자고 일어나서 유서쓰고 자살하러 가는게 말도 안된다고 한
논거가

1.자살을 계획하고 한숨자고 실행하는것 자체가 말안됨
2.자살을 계획하고 자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유서쓰는것도 말안됨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내린 건데 무슨 우울증이니 개씹같은 소리 내뱉으며 염병하는데
니가씨부린 상황은 자기전에 자살을 계획한것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애초 제시한 논거도 제
대로 이해못하고 반론질 하려고 뽀뽀하는데 이런 똥뭇글은 여러번 쓸기회 주지 않습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2013/05/12 01:33

psc0206 2013/05/25 15:16 답글
 그러면 아수라님의 일변주장의 전제가 잠을 자고 자살하러 갔다 인데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잠
을 못 이루는 상황이 잦았다고 하네요 그럼 자살한 그날도 잠을 못 이루고 가셨다면 아수라님의 주
장은 깨지는건가요?


아수라 2013/05/25 15:21 답글
 글썸따라가면 헛소리 하지말고 그냥 잠이나 자십시오.지금 글에서 제시한거 자체가 5개 목록인
데 뭘 허튼 소리하고 있는지.후후.

오에스 2013/06/21 19:10 답글
 오블로그 개편다..개재있어..ㅇㅅㅇ

리얼이즈 2013/09/08 18:06 답글
 아수라님 팬입니다 여기 아수라님의 블로그내용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멀리멀리 알려져야
한다고 보네요 이런나라에서 사는게..이젠 소름끼치도록
무섭네요 ..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진짜 황당합니다

hypocrite09 2013/09/10 00:53 답글
 진실을 위해, 국가를 위해 싸우시는 아수라님, 존경합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이렇듯 간단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국민들은 오죽 무사할까요... 정말 국민들이 걱정됩니다.

확실하게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선 우리들이 어떻게 나설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있다면,
한국민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Serena 2013/10/16 15:57 답글
 신라시대 중세시대만봐도 지금세상이 그렇게 이상한건아닌듯합니다ㅋㅋ 물론그러다 망한
나라가많은게 슬프네요

아수라(godemn)님은 로그인한 사람에게만 댓글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무료 일보 전문제공 예스폼](http://www.yesform.com) www.yesform.com

서식분야 랭키1위, 640만 회원이용! 무료 일보, 일보샘플 전문제공 예스폼.

[조선일보구독센터 마이구독닷컴](http://www.mygudok.com) www.mygudok.com

조선일보구독시 무료기간부여, 푸짐한이벤트, 다양한 학습지제공, 조선일보혜택전문상담

[PPT제작대행 소셜라인](http://www.islppt.com) www.islppt.com

평일 주말 24시 운영, 기업 관공서 대학 개인 등 PPT 프레젠테이션 제작 대행

Ads by **NAVER** | 가입신청

'진실판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